마이디팟 웹소설 투고 시놉시스

라떼북(로맨스)

작품명	망각의 늪에서		
보낼곳	info@mydepot.co.kr		
장르 및 수위	15세 이상가	필명	나우리
희망 출간 방향	유료 연재	연락처	010-6320-6701 victoryagain626@gmail.com
예상 완결 분량 (공백 미포함 기준)	245000 자		
키워드	#동거 #계약 연애 #까칠자상남 #재벌 #오피스 로맨스 #권력남의 순정		
무료연재 여부	미공개작		
작가 이력	신인		

로그라인 / 기획 의도

*기획의도:
까칠한 남주와 씩씩한 여주가 재미난 설렘을 유발하며, 험난한 운명에 맞서는 기업대표 남주와 건축설계사 여주의 사랑이 유쾌하면서도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그려진다. 전반적으로 빠르고 통쾌한 사이다 전개와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의 공감과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현대로맨스!

*셀링포인트 :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기대감을 주기 위해 남주가 여주와 함께한 기억을 잃었다는 모순적 상황을 설정했으며 처음 시작 부분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넣었다.

전개 과정에서는, 궁핍함에도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는 여주와 계략에 휘말려 목숨이 위태로운 남주가 난관을 '주도적'으로 풀어가며 긴장감 넘치는 반전, 거대 그룹 주도권을 둘러싼 암투, 아찔한 순간들을 헤쳐가며 두 주인공이 사랑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모두가 이 작품만의 독특함으로 작용해 독자의 기대감을 채워준다.

*로그라인: 우연히 도로에 쓰러진 남자를 구조한 여주가 기억을 잃은 그를 사랑하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이야기.

작품 소개

다시 살려내 제발---환상처럼 사라진 순간들을---.

살포시 입술이 포개졌다.
맞닿은 입술 감촉은 촉촉하고 말캉했다,

해 질 녘 붉은 노을이 검은 머리칼을 붉게 물들이는데, 그가 귓가에 살며시 속삭였다.

“좋아해.”

첫 키스였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수진은 안개 자욱한 도로에서 사고당한 남자를 구한다. 어쩌다 사고로 기억을 잃은 그를 집에 데려오고 연우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며 한 지붕 아래 한없이 달콤하고 한없이 긴장감 넘치는 동거를 하는데.
연민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관심으로 점차 스며들 듯 애정이 싹트던 때, 불시에 연우가 사라진다!

*

우연히 본 텔레비전에서 멀끔히 대기업 사옥을 걸어 나온 연우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 낯선 미모의 여자랑. 알고 보니 그는 수진과 함께한 당시만 빼고 기억이 회복된 상태.

“이럴 수가---날, 잊어?”

긴긴밤을 지새운 수진은 건축 설계자다운 계획을 세운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할, 물거품처럼 사라진 순간들을 되돌리게 할.

“혹시 나를, 만난 적 있습니까?”

캐릭터 소개

김한성(연우) : 금수저 중의 금수저라고 할 만한, 손꼽는 재벌 태성 그룹 장남이다. 오직 타인에게 군림하기 위해 칼을 물고 태어난 것 같은 군주. 폐부를 찌르는 말을 장기로 구사하며 로비를 걸으면 시즌 명품 패션쇼 런웨이 위를 걷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스마트한 두뇌에 그룹 건설 부분 대표를 맡아 야근을 밥 먹듯 할 정도로 워커홀릭이다.

금쪽같은 기억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른다. 미치게도.

이수진 : 건축 설계사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인 ‘뚝딱 영앤 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전담 로봇. 베테랑으로 일 잘한다고 붙은 별명이다. 그녀의 신조는 어릴 때부터 손수 키워주신 할머니 말씀. ‘사람은 밥힘으로 사는 거지!’다. 현재 목표는 큰맘 먹고 적금 깨 장만한 경차 남은 할부금을 몽땅 갚는 거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남자가 불쑥 나타난다.

강우식: 소리소문없이 돈 굴리는 재주가 남다르다. 벼락부자 졸부들에겐 구세주인 셈. 그에게 줄 한번 대려고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갈 정도. 드러난 명함엔 무역업 대표로 나오지만 실상 그의 출신과 하는 일은 비밀에 감춰져 있다.

“나, 보기보다 꽤 순정파야.”

차연지: 여신상이 살아난 것 같은 우월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명석한 두뇌의 기업 전문 변호사. 한성이 일하는 곳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그가 가는 식당에 일수를 찍고 업계 사모님들 사교 파티에도 꼬박꼬박 참석해 예쁨을 차지한다.

“내가 미쳤지. 그를 몰라보고 차다니.”

줄거리(구체적으로)

기: 늦은 밤 퇴근길. 불시에 괴한이 김한성을 덮친다.

할머니 집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가던 수진은 안개 자욱한 도로에서 사고당한 남자를 구조한다. 낯선 이를 집에 들인다는 갈등 끝에 그를 집에 데려오고 연우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쩍 둘은 가까워진다. 낯익은 장소에 다녀와 멍한 상태인 그에게 위로를 전하던 와중, 연우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당당히 그녀 앞에 서기 위해, 어쩐지 찜찜했던 빌딩을 다시 찾은 연우는 불시에 사고를 당한다.
텔레비전에서 멀끔해진 연우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한 기억을 잊은 걸 안 수진은 다시 그를 만날 방법을 찾는다.

승 : 태성그룹 건설사업부 면접장에서 놀랍게도 수진은 김한성(연우)과 딱 마주친다. 몰라보는 그가 야속하면서도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김한성이 대뜸 제안한다. 대표 직속 프로젝트팀에 들어오라고.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일정이 잡히고 수진과 한성은 출장길에 오른다. 그곳 공예점에서 수진은 기묘한 토속 신앙 여신 조각상을 산다.

한성의 어머니 이유정은 신부감 리스트를 추리고. 한성은 정략결혼이 마땅치 않지만 맞선 상대를 만난다. 주연과 선보는 자리에서 한성은 대뜸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말한다.
얼마 후 김한성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는다. 바로 약혼 날짜가 잡혔다는. 회사 사내엔 김한성 대표의 약혼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수진은 그 소식을 듣고 우울감에 빠지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김한성이 비를 쫄딱 맞고 서 있다.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둘은 키스한다. 그리고 한성이 ‘계약 애인’을 제안한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보자는 마음에 수진은 수락한다.

자선 파티가 열리고 수진은 한성이 보낸 차에 오른다. 난생처음 아름다운 이브닝드레스를 걸친 수진은 파티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대면하는데 수진이 긴장으로 떨 때 한성이 말한다. 사랑하는 이라고.

뉴스 속보가 뜬다. 소비자단체가 태성 그룹 본사로 몰려가 집단시위를 벌인다는. 사건을 일으킨 건 김무성 전무인데, 소문은 김한성한테 몰려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한성이 만난 법무팀 변호사가 차연지였다. 그녀는 한성의 대학 동문이자 한때 연인이라 생각했던 여자. 수진은 한성이 그녀

와 헤어진 후 여잘 진지하게 만나지 않는다는 걸 듣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불시에 한성이 수진을 호출한다. 부랴부랴 급히 도착한 옥상엔 헬기가 떡하니 웅크렸다. 수진 심장이 콩콩 뛰박질을 멈추질 않는데 한성은 태연히 피신하러 가자고 말한다. 그들이 간 곳은 부자들만의 지상 낙원인 섬. 태성 일가 개인 별장이었다. 바닷가 야외파티에서 수진에게 훤칠한 비밀에 싸인 남자, 강우식이 다가온다.

한성은 집으로 올라가는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괴한의 공격을 받지만. '두 번씩이나 당하면 병신이지.' 하며 괴한을 잡아 족친다. 놈의 뒤를 캔 한성은 김무성 전무 멱살을 거머쥔다. 그리고 사내에 소문이 돈다. 김무성 전무가 사직한다는.

회사 근처에서 잔치국수를 먹던 수진에게 메시지가 떨어진다.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강우식이다. '골대 있다고 골 못 넣습니까?'라고 말한 남자와 어쩌다 클럽까지 가게 된 수진. 강우식은 자꾸만 술을 권하는데--- 수진은 미친놈이라 느낀다. 마침 제때 한성이 클럽에 들이치고. 못 가게 막으려는 강우식과 그녈 데리고 나가려는 김한성의 대치로 불꽃이 튄다.

거대한 유람선이 떴다. 그날은 김한성 어머니 이유정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 해외에서 유학하던 피아니스트, 한성 여동생 김한주가 등장한다. 무대 연주가 이어지고 아름다운 선율에 수진은 감동한다. 그 곡은 어린 시절, 수진을 우연히 만났던 걸 회상하며 한성이 작곡해 마지막 연주를 했던 거였다.

클럽에서 강우식은 수하들에게 밀수 지시를 내린다. 그 자리에 우아한 붉은 원피스를 걸친 차연지가 발을 내민다. 강우식에게 태성 그룹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걸 안다고 말하며 협력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신이 김한성이 사라진 기간 그를 구했었다고 밝힌다.

태성 그룹 주총이 열리고. 강우식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전자투표 버튼을 꾹 누른다. 그가 정한 대표로 교체하기 위해.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투자자 연합회에서 김한성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던진다. 강우식이 한성에게 운 좋다고 하자 운도 여러 번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화답한다.

수채화 같은 안개 낀 메사쿼타이아 가로수 길을 수진은 걷고 있다. 그리고 맞은 편에서 한 여인이 걸어온다. 그녀는 바로 김한성 어머니 김유정. 왜 한성 곁에 머무냐고 묻자 수진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한성 곁을 떠나줬으면 하는 의사에 수진은 그를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말라고 당당히 말한다. 수진의 강한 면모에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꾼 김유정은 자선 파티에 초대한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 수진에게 갑자기 대형 사이클 한 대가 근접한다. 헬멧을 천천히 벗은 남자는 김한성. 어머니를 만난 그녀를 염려한 게 완연한 얼굴이다. 바이크족처럼 그들은 시내를 질주한다. 그리고 교외 바이크족 카페에서 선배라는 카페 주인장을 만난다. 그에게 한성은 여친이라고 태연히 말해 수진을 놀라게 하는데. 사적인 관계에서까지 그리 말해도 되는지 우려하자 한성이 말한다. 진짜 사귀자고.

전: 강우식은 김한성 자택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파티가 열리는 날. 수진과 한성이 참석한다. 김유정이 할 말이 있다며 한성을 데리고 간 사이 수진은 한성의 바이크족 친구 이창수를 만나는데. 그의 부탁으로 차에 갔을 때 불시에 기습이 덮쳐

온다.
눈떠본 수진이 마주한 건 낯선 집. 그곳은 강우식 자택이다. 왜 데려왔냐, 뭘 노리는 거냐 묻자 강우식이 말을 던진다. '그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런 일까지 벌였을까? 보기보다 난, 꽤 순정적인 남잔데.'

수진이 사라진 후 한성은 미친 사람처럼 그녀를 찾는다. 어지간해선 냉정을 잃지 않는 한성이 그런 걸 비서인 장만은 낯설어한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한성은 아버지 묘로 간다.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욕구가 음악으로 분출되었었다. 차갑고 무감한 인간이 아버지였다. 왜 그랬는지 몰랐지만. 움켜쥔 종이에서 검은 잉크가 빗물에 녹아들고. 그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도 뿌리째로. 이수진이란 여자는 자신에게 어떤 존재일까?

수진은 강우식 자택 담장을 어정거린다. 지나가던 꼬마에게 브로치를 전달하려고 날린 순간, 고요하다. 대신 '이런 짓 소용없어요,' 라는 말만 불시에 날아온다. 너무 답답하다고 하자 강우식은 드라이브를 제안한다.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근방 차 안에서 한성이 그것을 주시한다. 강우식 차가 전망대 레스토랑에 스르르 멈춘다.
한성이 그곳에 왔다는 걸 눈치챈 수진은 갑자기 배탈 났다며 화장실로 향한다. 파우더 룸에서 화려한 여잘 대면하는데--- 알고 보니 김한성. 무사하냐는 말에 수진은 울먹인다.
드디어 탈출! 질주하다 잡힐 위험에 처한 순간! 제때 장만이 차를 착 갖다 댄다. 미역 줄기 같은 한성 가발이 날아가고. 추격전이 벌어진다.
단아한 저택 앞에 한성 차가 당도한다. 알고 보니 그곳은 한성이 태어나고 청소년기까지 자랐던 곳. 그곳에 그녀를 남겨두고 떠난 한성은 소식이 끊긴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날, 한성에게 전화조차 없던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수진은 소식을 접한다. 차연지와 한성이 약혼한다는. 흠뻑 비를 맞은 그녀는 떠날 결심을 한다.

한성은 바쁜 일정으로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장만의 염려가 아니라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건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발길이 자꾸만 그녀에게 향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으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도, 여인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는 짓을 하는 것도.

한성은 비어버린 저택 거실에 우두커니 섰다. 있어야 할 존재가 없었다. 이수진 그녀가. 뭐라 탓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짙은 어둠이 집안을 잠식하고 한성은 뻥 뚫린 기분에 사로잡혔다. 우연히 발견한 쪽지에 뜬 선명한 글자. 「이제 새 삶을 살기로 했어요. 행복하기를.」그의 시선이 연못으로 흘렀다. 홀로 피어난, 그녀가 심었다는 연꽃을 물끄러미 보던 한성은 딱 숨이 멎을 것처럼 심장이 욱신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머릴 움켜쥐었다.

파도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 자그마한 바닷가 카페. 토속 신앙 여신 조각상이 카페 카운터에 덩그러니 올라앉아 있다. 그림을 그리던 수진은 선배인 언니에게 커피머신이 고장 났다며 수리 기사를 불렀다고 말한다. 마침 수리 기사로 일하는 종길이 들어오고. '혹시 야, 약속 있습니까?' 불타는 얼굴로 묻는다. 수진은 난감하다. 아마, 저 질문 한번 하려고 수십 번도 더 고심했을 테니까.

안개 자욱한 바닷가, 빨간 지붕 등대에 노란 불빛이 빙글빙글 도는데. 김유정은 바닷가 등대길을

따라 걷다가 손바닥을 편다. 그 안엔 클로버 문양 백금 반지가 오도카니 올라앉아 있다. 고개를 든 순간, 멀찌감치 한 남자가 걸어온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옛 연인 강석준이다.
“아는 모양이네. 태성을 먹으려는 거. 네가 그렇게도 원하던 걸 내가 가지려고.”

한성에게 조사단이 들이닥친다. 금세 태성 그룹 회계장부를 모조리 가져가고 관련자들까지 소환한다. 결국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고. 해외 출장조차 가기 어려워진다. 그러자 점차 그룹 내에서 말이 나온다. 대표를 사임하고 물러나라고. 한성은 피식 웃었다.
“이사회 따윈 문제가 아니야.”
“그럼?”
“진짜는 저기지.”
그가 검지로 강 건너편 한곳을 가리켰다. 국회였다.
“이제 상황을 역전시켜볼까.”
“---뭐? 그게 가능해?”
한성이 씨익 웃었다.
“완전히 돌아왔어. 기억.”
장만의 얼굴이 멍하다가 어느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결 : 수진은 카페 언니 은정과 장터에 나왔다. 그녀는 은정에게 종길 씨 좋은 사람이라 데이트를 거절했다고 말한다. 장터 국밥집에 들른 그녀는 우연히 마주한 텔레비전에서 김한성을 본다. 태성 그룹이 회계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리고 강한 의혹에 휩싸인다. 설마, 일부러 날 멀리 보내려고---그랬다고?

비행기 안 비즈니스석. 한성은 노트북으로 기사를 챙겨보고 있다. 기사 내용은 아수라장인 국회 모습. 새로운 회계 처리법이 법안 통과 못 하다! 가 헤드라인으로 뜬. 딸깍 다음 화면으로 넘긴다. 이번엔 검찰에 출석하는 강우식 대표다. 불법 자금 세탁, 뇌물 수수,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탈세를 시도한 정황, 살인 교살 지시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 수사받고 있다는---. 그걸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탁 접는다.

“무슨 관계였습니까?”
한성이 어머니에게 시선을 틀었다. 아버지 기일에 방문한 가족묘지 은목서에서 은은한 향이 뿜어져 나오고. 어머니 이유정은 입을 뗀다.
“둘 다 내게 마음이 있었어. 난 어려운 선택을 했고. 석준인 그걸 받아들였다 믿었어. 그때 우리 집안은 파산지경이라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결국 그녀가 한성의 어깨에 기대고 흐느낀다. 썰렁한 두 분 사이서 한성은 많이 힘들었었다. 아버질 원망도 많이 했었고. 문득 한성은 깨달았다. 어머니도 모친이기 이전에 평범한 여자였다는 걸.

어느새 훅, 가을이 가버리고 눈바람이 휘날리는 날. 한성은 운전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가자 한적한 마을이 나타났다.
바닷물에 눈이 닿자마자 녹아내린다. 그리고---카페 하나. 바닷가에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희끄무레한 인영이 어른거린다.

그해 겨울, 첫눈이었다. 파도가 밀려와 우두커니 선 수진 발을 적셨다. 물이 얼음장처럼 찬데도

맨발로 뭔가를 쓴다. ‘김한성’이라고. 그때 멀찍이서 휘날리는 눈발 사이로 누군가 걸어왔다. 먼저 알아본 심장이 제 짝을 만난 듯 미쳐 날뛰려 했다.
“멀리 가진 못했네.”
“뭘 원해요.”
“이수진.”
“난,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그만 날 잊---.”
“잊을 수 없다면? 아니. 절대 못 잊겠다면?”
“---왜.”
“기억이 돌아왔으니까,”
“----!”
“그리고 널, 사랑하니까.”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꽉 차게 안아주는 따스한 체온에서, 입가에 부드럽게 핀 미소에서 수진은 한성의 사랑을 체감했다. 가슴 깊이 자리한 그라서. 다시 만나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이건 첫사랑이 아니라 끝사랑이라고.
저만치 카페에서 토속 신앙 속 사랑의 여신이 미소 지었다.

<원고 일부 1~11화>
<<망각의 늪에서>>

1화. 인(因) 그리고 연(緣)

깊어가는 검은 밤.

뚜벅.

뚜벅.

한 남자가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흐린 등불만 간간이 고갤 내미는 지상 주차타워였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에게 빛이 비치는 순간, 장신의 훤칠한 모습을 드러냈다.

힐끗 프레임이 커다란 손목시계를 본 한성 입가에 깊은숨이 흘러나왔다. 야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벌써 며칠째인지.

‘마, 이번 프로젝트는 니가 책임지고 해야 할기다.’

정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울리는 듯했다. 쳇, 그런 당부 안 해도 알아서 잘---.

“차는---?”

순간적으로 주차 시켰던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 글쎄, 대표님은 저 없인 안된다니까요?’

비서 녀석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걸 너나 잘 챙기라며 나온 게 좀 전이다. 임원이라고 특별히 주차구역 지정할 필요 없다고 했던 건 며칠 전이고.
피싯,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주머닐 주섬주섬 뒤졌다. 뛰어난 머리 회전으로 정평이 났지만 이런 덴 의외로 허술했다.

삐빅-.

자동차 킬 누르자 저만치쯤에서 번쩍, 불빛이 점멸했다. 새삼 현대 문명 발전을 절감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철골조라선지 고요한 공간을 온통 발걸음 소리가 장악했다.

달깍 차 손잡이에 손을 올릴 때였다. 쭈뼛, 섬뜩함이 전신을 훑었다.

“---뭐지?”

가만히 어두운 공간을 응시하는데 별안간 코로 훅, 밀려든 낯선 향.

“크윽!”

퍽—! 뭔가 둔탁한 것이 머리에 내리꽂힘과 동시에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래도 의식을 억지로 부여잡은 한성이 천천히 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끈적하고 불그죽죽한 액체---.

그걸 확인하고 서서히 고갤 돌리는데. 퍽—! 다시 둔탁한 뭔가가 뒤통수를 후려쳤다. 시야가 흐려졌다 맑아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점차 온통 새까만 어둠이 내려앉았다.

**

심장박동처럼 부르릉— 울리는 엔진음. 그리고 강물처럼 물결치는 아이리시 휘슬 음이 가득 찬 차 안.

“아, 뭔 날씨가---.”

수진은 안개가 자욱이 낀 도로에 눈을 조프렸다. 간만에 할머닐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고 가라는 걸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돌아섰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자고 아침 일찍 나오는 게 나

았을까.

때늦은 후회 따윈 쓰레기라며 눈을 부릅떴다. 안개등까지 켰건만 시야는 여전히 안갯속. 한 치 앞만 간신히 보며 느릿느릿 달렸다. 쪼그만 애마인 차는 꼬박꼬박 적금 모아 간신히 장만한 거였다.

"으으응 그러니까, 할부가---얼마 남았더라?"

작은 머리통을 부지런히 굴리는데---.

"어?"

희뿌연 전방. 가장자리에 뭔가 거무스름한 물체가 턱, 놓여 있었다. 노루나 뭐 그런 종류? 가끔 도로에 사고 난 동물이 있단 얘길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닐까?

여긴 인적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드문 도로였다. 불현듯 가슴이 출렁댔다. 그냥 갈까? 아니야, 그래도 혹시---.

사람일지도 모른단 가능성에 수진은 차를 서서히 세웠다. 그리곤 조심스레 달칵 차 문을 열었다. 안개 속에 여전히 희뿌연 뭔갈 향해 가는 걸음이 무거웠다.

"---흐억! 사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슈트 차림 젊은 남자. 심장이 손에 잡힐 것처럼 마구 뛰고 파들파들 다리가 떨렸다.

"저기---이, 이봐요. 괜찮아요?"

쓰러진 남잘 향해 조심스레 물었다. 꿈적도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헉! 머리에 피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병원 병실 창으로 달빛이 비쳐 들고. 침상에 죽은 듯 누워있는 남자의 반듯한 얼굴 위에도 빛이 어룽거렸다.

"하아---."

수진은 절로 나오는 한숨을 삼켰다.

"왜 여기까지, 신고만 할 수 있었는데."

음--뭔가 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에이. 사람이 인정이 있지. 어떻게 그대로 버

려두고 가냐고.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갈등을 누르는데 문득 세상의 빛을 다 가진 듯한 남자 얼굴에 시선이 머물렀다.

'위험한 고빈 일단 넘겼습니다.'

의사 말 아니래도 알 수 있었다. 이마에 붕대를 칭칭 감은 남자는 아직 의식을 차리진 못하고 있지만. 얼굴빛은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접어든 걸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희고 매끈한 피부.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가 병상 옷으로 가려도 다 드러났다.

참, 안 어울려.

아무리 봐도 그는 병상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존재였다. 우아하면서 관능적인 사내다움이 공존하는. 마치---그래. 새하얀 눈이 펄펄 날리는 북쪽 시베리아 표범이 느른히 쉬는 모습이 딱 저럴 거다.

"---으."

그때 선명한 곡선을 그린 입술 잇새로 신음을 흘린 남자가 반듯한 미간을 찌푸렸다.

헉. 드디어---?

"이보세요. 제가 보여요?"

서서히 올라가는 눈꺼풀. 그는 한동안 흐릿하게 그녈 바라봤다. 새벽하늘에 여명이 도는 것 같은 아름다운 눈동자였다. 남자 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서서히 초점이 돌아온 남자.

"넌---?"

살짝 쉰 나직한 미성이 물었다.

"와 드디어, 깨어났군요? 아 참, 전 이수진인데. 도로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제가 병원으로 옮겼어요."

"도로에--- 쓰러져?"

"예. 기억 안 나요?"

"----."

한동안 아침 고요가 찾아왔다. 마치 무언갈 잃어버린 방랑자 같기도 하고. 미아가 되면 영락없이 저런 눈빛일 텐데 싶던 순간.

"기억 안 나."

“에이 그야, 사고 당시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침묵에 삼켜진 숨조차 기다리게 만든 말은.

“전혀 기억이---안 나.”

놀랍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었다.

**

그로부터 두어 주일쯤 흐른, 꽃잎 흩날리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먼 하늘에 하이얀 구름도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쨍한 햇살도 비추는데. 마른 한숨을 삼킨 수진은 빛바랜 시계를 힐긋 보곤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퇴근 후 이 시간쯤 곧장 병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일상이 되었다. 차마 그를 버려둘 수가 없었으니까. 타박타박 걷는 걸음을 따라 톡, 톡 초침이 따라왔다.

남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는 게 의사 소견이었다. 그래서 좀 만 더 지켜보면 나아질지도 모른다 기대했는데,

‘퇴원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뭔---.”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퇴원하래. 그에겐 낯설기 이를 데 없을 바깥세상으로.

“어쩌지?”

지문이 흐려 경찰에서도 신분 조회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 하고 신분증도 그 무엇도 없는 상태. 무연고자 보험으로 병원빈 어찌 해결했는데 나머진---어쩌냐고. 째깍째깍— 초조함이 밀려왔다.

달칵-,

1004호 병실 문을 열자 등진 채 선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다. 길쭉한 손이 커튼을 툭 건드리자 햇살이 들이치고 휭 밀려든 바람에 새까만 머리칼이 사르르 흩날렸다.
그런데--- 창턱을 짚은 손이 주먹을 쥐더니 잘게 떨었다. 그 장면 하나에 가슴이 저릿했다. 치이고, 쫓기고, 내몰리는 기분이 읽혔으니까.

“큼.”

작은 인기척에도 미동도 없다가.

“---퇴원 절차 밟았어요.”

그제야 돌아서는 남자. 빛을 등져선지 그린 듯 굴곡진 섬세한 얼굴이 반쯤 그늘져 있었다.

“일단 당분간 제, 제집이라도 머물면서 지내요. 기억이 그음세 돌아올지 모르니---.”

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말을 다다다 뱉었다.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와 진짜, 왜 이렇게 말 꺼내는 게 어려운 거야. 이마에 식은땀까지 솟았다.

“---.”

그가 말없이 말을 마칠 때까지 그녈 바라봤다. 달빛 어룽대는 밤바다처럼 한없이 침잠한 눈빛으로. 마른 숨을 뱉으며 수진이 종이 쇼핑백을 턱, 사이드 테이블 위로 올렸다.

“이건 갈아입을 옷인데, 먼저 옷부터 갈아입고---.”

“고맙습니다.”

“----.”

어느샌가 눈 녹듯 마음이 풀어진 그녈 바라보는 시선에도, 나직한 말 한마디에도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어쩔 수 없는데 대한 씁쓸함이, 낯선 상황에 대한 외로움이. 이방인을 받아들여 준 데 대한 고마움이.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단층 주택이었다. 지은 지 몇십 년은 되었을. 생전의 부모님이 계셨을 때부터 터를 지켜온 집이라는데. 감상을 더 한다면 소박하되 누추하진 않다고 해야 할까.

“여기가.”

“네, 좀 집이 작죠? 그래도 지내기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방글방글 웃으며 말하는 이면엔 어색함이 묻어 나오고 있었다. 딱 봐도 추억이 가득한 집. 낯선 남잘 이 집에 들이는 건 지금까지 이수진 인생사에 결코 없던 일이겠지.

끼익— 녹슨 쇳소리와 동시에 레몬 빛 페인트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철 대문이 열렸다.
그녀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그만 마당을 둘러보다 화단에 덩그러니 핀 노란 튤립에 시선이 머물렀는데. 살랑살랑 마치 손님을 반기는 것처럼 흔들렸다.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쓰세요. 동생이 쓰던 방인데 지금은 군대가 있어서.”

"----."

집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목재에서 나는 마른 장작 같은 향이 훅, 밀려왔다. 부엌 딸린 작은 거실과 두 개의 방. 남은 공간은 창고로 쓰는 듯했다. 그가 머물 방은 일인용 침대 하나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고.

창 너머 바람이 밀려와 끄트머리가 닳은 올리브 빛 커튼이 봉긋 부풀었다. 째깍째깍. 방 한쪽에 걸린 시계 초침이 공간을 침범했다.

조그만 방에 단둘이.

오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도록, 눈동잘 굴리는 여잘 보노라니 헛웃음이 찼다.

2화. 너의 이름은

짧은 간격을 두고 발그스름한 생기 찬 얼굴을 가만히 내려봤다. 훈훈한 봄바람이 방안으로 밀려 들어오더니 어색한 방안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찼다. 그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기분 탓인지 그녀에게서 은은한 라일락 향이 흘러오는 듯했다.
오목조목 화장기 없는 말간 얼굴, 큼직하고 헐렁한 티에, 그의 가슴팍쯤 닿을까 말까 싶은 키. 품에 안으면 폭 안길 것 같은 아담한 체구. 왠지 귀엽다고 머릴 흐트러트려 주고 싶은 여자였다.
내가 좋아하던 분위기일까? 그것조차 가물가물하지만. 묘하게 시선이 갔다. 은인은 은인인데 분명 성숙한 여인인 것도 맞았고. 앞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

"쉬어야겠는데."

"네? 아---네. 그러세요. 오랜만의 외출이라 힘들었죠?"

방 밖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슬쩍 밀쳐내기라도 한 양 수진은 황급히 나가며 방문을 닫았다.
벌렁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성큼 다가왔다. 빛바랜 누런 벽지는 흘러간 세월을 대변하듯 본래 색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잊을세라 쿡쿡, 붕대 속에선 통증이 올라왔다.

어쩌다 이리됐지?

사고 전 입고 있던 옷가지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곤 좀 값나가 보인다는 거. 일하다 당했는지 비즈니스 차림이었다는 거. 그게 다였다.

"하아--."

낯선 이에게 신세 지는 상황. 이런 걸 싫어했나? 뭔가 익숙 치 않은데. 몇 주간의 병실 생활 도 좀이 쑤실 정도였고.

똑똑.

상념을 깨는 노크 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더니. 동그란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며 문틈 사이로 빼꼼 고갤 내밀었다. 방금 옷을 갈아입었는지 민트색 티셔츠 강아지 문양도 눈을 반짝이는 듯했다.

“수프 끓였는데, 먹을래요?”

식탁 위, 오도카니 올라앉은 하얀 접시에선 감자로 뵈는 물체가 동동 떠다녔고 김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달그락달그락 국자로 냄비를 긁는 게 야무진 수진이 드륵 의자를 끌며 그 맞은 편에 앉았다.

“입맛에 맞을 진 모르지만, 먹을 만해요.”

당장 먹어야 할 것 같은 뉘앙스에 한 수저 떠넣는데 빤히 보는 둥근 눈이 심적 부담감을 키웠다.

꿀꺽.

“맛있---.”

“그렇죠! 맛있죠! 그럴 줄 알았다니깐요.”

활짝 웃으며 고갤 끄덕이는 그녀 어깨에서 단발이 팔랑팔랑 나부꼈다,
맛없다, 했으면 어쩔 뻔했나. 수프는 담백해 그런대로 먹을 만은 했다. 다만 좀, 아니 많이 싱겁다는 거 빼고.
짤랑짤랑 다릴 흔들면서 입에 가득 수프를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이---퍽 사랑스럽다. 진달래 빛 작은 입술이 미어터질 듯해 그만 픽, 웃음이 샜다.

**

“일 처리는, 잘 됐지?”

연륜이 담긴 굵직한 목소리였다.

—그, 그럼요. 당연히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든 수화기에서 초조한 듯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달칵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가 휴, 숨을 몰아쉬었다.

“----.”

그의 시선이 널찍한 탁상 명패에 닿았다. 금빛으로 이름이 음각된 검은 명패가 번쩍이고 있었다.

‘전무이사 김무성’이라고.

김무성이 회전의자를 빙글 돌리자 전면 유리 창밖으로 장관이 펼쳐졌다.
화려한 밤거리---불빛들이 크리스마스트리처럼 경쟁하듯 번쩍이고 있었다. 마치 발아래 놓인 욕망 덩어리들이 어서 잡아달라고 아우성쳐대는 것처럼.
초고층빌딩 상층부는 어쩌면 인간들의 모든 욕망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손 내밀어 그걸 꽉 움켜쥐자 손안에서 불빛이 파삭 부스러졌다.
그걸 무심한 얼굴로 내려 보다가.

“김 한성---.”

녀석을 떠올렸다. 그러자 입술을 비집고 신음이 흘러나왔다. 앓던 이라서.
너무 원망하지 마라. 태어날 때부터 당연했던 건 불공평하잖아. 뇌까리던 그때, 탁상 전화기에서 빨간 불빛이 점멸했다.

—전무님. 긴급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곧 가지.”

느슨히 기댄 의자에서 훌쩍 일어난 그가 타이를 조이며 매무새를 고쳤다. 방해꾼이 사라진 전장에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

팔랑팔랑 새파란 나비가 단층집 화단, 노란 민들레꽃 위에 사뿐히 날개를 내렸다. 주말 오후, 비스듬히 창가에 기댄 장신의 남자가 그 나비를 물끄러미 보는데.

“준비됐어요?”

방문 밖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나갑니다.”

흰 셔츠에 커다란 후드 티를 껴입은 그가 후드를 푹 눌러썼다. 주말은 이수진과 장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끼익 방문을 여니 큰 장바구니를 추슬러 맨 수진이 현관에서 비틀대며 운동화를 한 짝씩 욱여넣고 있었다.

“어어---!”

성큼성큼 걸어간 그가 비틀대는 가는 허리를 훅, 끌어당겼다.

“조심.”

“----.”

“하라고.”

귓가에 나직한 음성이 흐르자 말간 얼굴이 멍하니 올려다봤다. 옅게 코앞에서 흩어지는 숨결에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하. 한숨을 흘렸다.

“날 줘.”

덥석, 장바구니를 잡아챘다.

“장바구닌 내가 들 테니.”

깜짝 놀란 표정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 고마워요. 그런데---.”

“음?”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

“이름 말이에요.”

“아무거나. 부르기 좋은 걸로.”

어차피 임시 이름인데 뭐라 지은들 중요할까.
그런데 대단한 작명가라도 된 양 골똘히 궁리하는 이수진. 어쩐지 어여뻐 쿡 웃음이 샜다. 얼마 안 있어 조그만 얼굴에 낀 먹구름이 활짝 걷혔다. 뭔진 모르지만 의기양양하게 턱 끝을 세우는 게 퍽 으스대고 싶은 모양새였다.

“연우---,”

“-----.”

“그냥 연우 어때요? 어차피 성은 모르니까.”

“연우? 특별한 이유라도?”

"그냥 잘 어울려요. 그 이름이."

연우라 불린 그는 기묘한 기분을 맛봤다.
뭔가 촉촉이 스며드는 따스한 기분. 난생처음 소중한 뭔가를 받은 기분. 정서적인 밥을 못 먹어본 듯한 허기가 있었는데, 수진이 그 이름을 부른 순간 허기가 조금은 채워진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둘을 제외한 주변이 모조리 무채색으로 변하고. 사선으로 비켜선 둘의 시선이 한점에서 만났다.

"맘에 드네."

이름도. 다른 어떤 것도.

바글바글 사람들로 가득 찬 마트 안은 몹시 소란스러웠다. 구매욕을 자극하는 경쾌한 음악 소리, 떠들어 대며 웃는 소리, 그리고 진열대마다 가득한 색색의 상품들까지.

수진은 카트진열대로 걸어가는 연우의 너른 어깨를 보며 생경한 기분에 젖었다. 본래 혼자 장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새 매번 그와 장 봤던 것처럼 이리 자연스러워지다니.

장보기 미션을 꺼내자마자 일은 척척 진행됐다. 장 볼 식료품 목록 뽑기. 최단 거리 마트에서 벌이고 있는 할인 상품 폭풍 검색, 어느 요일이 장보기에 가장 최적인지 정하기까지.
그걸 순식간에 해치운 그는 원래 모든 걸 수월하게 만드는 실행력 쩌는 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기분이 절로 들 만큼 추진력이 남다르다.
카트를 끄집어내는 연우 팔뚝에서 선명한 근육이 실체를 드러낸다. 얼핏 봐도 운동 좀 했던 티가 팍팍 나. 어쩌면 그런 사람이라면 일상 활동에 더 빨리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랐다.

"안 옵니까?"

이미 저만치에 선 연우가 우뚝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저만큼이나 간 거야? 아아---다리가 긴 인종이지. 새삼스레 명징한 사실을 곱씹었다. 프스스 웃음을 흘리고 바짝 다가서자 그녀 머리가 딱, 너른 가슴팍쯤 다다랐다.

"위쪽 공긴 어때요?"

"----."

"뭔가 다를 것 같아서."

"똑같은데."

붉은 입술이 피싯, 웃었다. 그때 마트 계산대를 둘러보던 우람한 체격의 남자가 멈칫,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고개가 삐걱 천천히 돌아갔다. 꽤 즐거워 보이는 남녀 한 쌍에게. 그중 남자 시선

을 유독 붙잡는 이가 있었다.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장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어귀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운 수진은 연우와 함께 골목길을 걸었다. 둘의 그림자가 길게 골목길에 늘어졌다. 아직 볼그스름한 저녁노을이 눈에 들어오는데 주변은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다.

"기억?"

"으응--- 그간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했으니까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잘 먹던 음식이라던가, 낯익은 장소라던가. 좋아하던 물품이라던가 그런 거."

"딱히---."

"에이 아직은 당연하죠. 실망하긴 일러요. 언젠간 꼭---."

"그만."

주절주절 말을 쏟아내다가 서늘한 어조에 말을 멈췄다.

"안 급합니다."

"----."

"수진 씨만 괜찮다면."

남 얘기하듯 무심한 투였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래 보여도 누가 뭐래도 가장 초조할 사람은 그일 텐데.

"연우 씨."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다.

설마 이래도?

"줄줄이 애들이 따라와서 아빠, 아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연우가 하아 긴 한숨을 흘렸다.

"그런 일은 없을걸."

“왜요?”

“어쩐지 그런 기분이 드니까.”

“흠---그럼, 비밀 임무를 띤 첩보원이 잡으려고 미친 듯 찾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

영화 한 편을 후루룩 찍은 장난기 어린 물음에 답하던 때 바람이 불어와 훌렁, 그의 후드를 벗겼다. 그 바람에 이마를 가렸던 머리카락이 훅 넘어가면서. 수채화처럼 펼쳐진 하늘 아래 귀티 나는 섬세한 이목구비가 훤히 드러났다.

연우---바꿔 부르면 우연. 우연히 운명처럼 만난 그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종착지인 대문이 코앞으로 다가설 무렵. 어둑해진 골목길을 걸어가던 연우가 멈칫, 걸음을 멈췄다. 수진이 동그란 눈을 깜박였다.

“어? 왜?”

눈동자를 느리게 움직인 그가 느슨히 뒤를 돌아봤다.

“뭔데?”

날카로운 시선이 한곳을 파고들었다.

“들켰는데.”

“----.”

“나한테.”

그의 시선이 꽂힌 자리엔 새까만 어둠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단번에 숨결이 달라진 연우는 건장한 어깨를 다 차지하다시피 한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하릴없이 입이 벌어진 수진을 연우가 슬쩍 잡아끌었다.

“잘 숨어---.”

투둑—.

순간, 낯선 소리가 울리자 수진의 눈동자가 확 커졌다.

3화. 이 일은 내가.

야옹.

“뭐야, 고양이였어?”

슬금슬금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걸어 나왔다. 노려보는 투명한 청회색 눈이 제법 앙칼져 뵈는. 뒤꿈치를 든 수진이 고양이를 조목조목 살폈다. 알록달록 꼬리를 길게 말아 올린 녀석은 영락없는 야생 고양이다.

짙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고양이를 본 연우가 천천히 고갤 저었다.

**

타닥타닥.

키보드를 신나게 두드려 대는 소리가 작은 사무 공간을 울려대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수진이 앉은 덴 고요했다. 모니터 화면 창엔 설계도만 빼곡하게 차 있고 마우스 위에 얹은 손만 분주하게 움직일 뿐,

종일 도면 삼매경에 빠져 있는 건 지난주 휴가를 왕창 썼기에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어깨가 좀 쉬라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럴 틈 따윈 사치.
그때 소장이 번쩍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봤다.

“아이고---오늘따라 바빠 뒤지겠구먼. 뭔 놈의 일이 이리 꼬리를 무는지. 수진씨. 이것도 좀 부탁해~.”

소장 말에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중소 건축사사무소인 ‘뚝딱 영앤 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는 요즘이 일감이 몰리는 철이라 순삭으로 시계가 돌아갔다.

연신 하품을 하던 수진이 기지개를 켜는데 파티션 너머 불쑥 고개를 뺀 남자가 종이컵을 쓱 내밀었다.

“저런, 얼굴이 반쪽이네. 커피 마시면서 해요.”

부담스럽게 밀고 들어 온 말에 수진은 돌덩이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맞닿자 남자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고 멀끔히 생긴 얼굴에 자부심이 흘렀다.

“아, 고마워요. 형석씨.”

요즘 날마다 저리 커피 조공을 한다. 뭐,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데, 뭔 짓 했어요? 오늘따라 피부가 달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칭찬이면 고마워요.”

“하하. 당연히 칭찬이죠. 아 참, 이 근처에 새로 생긴 맛집 하나 알아냈는데, 혹시 오늘 저녁 어때요?”

“미안해요.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해서.”

“그래요? 잘 알겠지만, 내가 요즘 모옵시 울적---.”

“아 그거라면 해결책 있어요. 자, 이거.”

방글방글 웃으며 서류뭉칠 건네자 형석이 눈살을 찌푸렸다. 믿거나 말거나 잡생각 많을 땐 일이 약 아닌가.

“아, 아니 그렇다고 이것까진--- 지금도 일 많은데.”

흘끔 본 팀장이 피실피실 웃었다.

“마침 잘됐구먼. 수진 씨 바쁘니께 좀 나눠 맡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닌감, 안 그려?”

“으아---인생 헛살았어.”

팀장마저 제 편은 아니라며 서류 뭉칠 낚아챈 형석이 앞머릴 거칠게 헤집으며 터덜터덜 걸어갔다. 헛웃음 삼킨 수진이 시선을 창으로 돌렸다. 봄 햇살이 유난히 맑았다. 쏟아진 빛이 유리에 맺히다 파시시 흩어지며 투명한 눈가에서 부서졌다.

“음---.”

오늘 점심도 샌드위치랑 커피로 때워야 하나 중얼거리다 문득.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떠올랐다. 집에 혼자 있을 장신의 남잔.

과연, 잘 있을까?

**

“잘 되는데? 뭐지?”

보글보글~ 키 큰 연우가 작은 공간을 다 차지하다시피 떡 버티고 선 주방에 라면 끓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누가 맡아도 입맛 쩝 다실 자극적인 향이다.
연우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마도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 같아서 봉지 설명서대로 끓였을 뿐인데 그럴싸하게 순항하고 있었으니까.

"흠, 내게 이런 재주가?"

국적 불명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면이 잘 풀어지게 젓가락으로 휘휘 젓다 한 가닥 건져 입에 쏙 집어넣던 때였다.

딩동—.

대문 밖 벨 소리가 평화를 깨뜨렸다. 누군가 방문한다는 말은 없었는데 뭐지? 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갓 끓인 뜨끈한 라면을 한 젓가락밖에 못 먹은 게 못내 아쉬워 입맛 다시면서.

나가보니 아담한 철 대문 아래, 작은 운동화 한 쌍이 수줍게 고갤 내밀고 있었다.

"누---."

"저예요! 수진 누나."

카랑카랑하고 야무진 목소리다. 철컹, 연우가 대문을 열자 갈색으로 탄 동그란 얼굴에 다람쥐처럼 또랑또랑한 까만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봤다.
초등 저학년쯤 됐을까.

"어? 누나가 아니네?"

"아아--- 그 누난 출근했는데."

"아이참! 오늘이 학교 임시 휴일이라 다 쉬는 줄 잠깐 착각했네."

그제야 낯설고도 준수한 이방인이 눈에 들어온 듯 꼬마가 찬찬히 그를 훑었다. 얼마 안 가 앙증맞은 입을 꼭 다문 녀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곤 검지를 척 빼 들었다.

"누구세요? 이 집엔 창우 형이랑 수진 누나만 사는데?"

피식, 그가 실소를 흘렸다. 돌연 나타난 꼬맹이가 남의 정체를 함부로 캐물어도 되나? 척 팔짱을 끼고 시선을 착 내리깔았다.

"뭔데. 넌."

"창우 형이 우리 형이랑 친군데요? 제 이름은 오동이고."

수진 씨 남동생이랑 잘 아는 집 아인가 본데, 어쩐다? 이런 일로 근무시간에 연락하기도 그렇고.

“난, 수진 씨 지인인데.”

“그래요? 아--- 근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있다 가도 돼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팔짝 뛴 꼬마가 팔을 덥석 잡으며 묻는데. 이걸 어쩌나---. 왠지 똘망똘망한 눈빛이 거절하기 어려운 강한 호소력을 담고 있었다.

잠시 후 원탁을 사이에 놓고 두 남자가 서로를 기민하게 살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자에 앉은 꼬마의 짤막한 다리가 달랑거리다 순간 멈췄다.

“시~작!”

“----!”

외침과 동시에 허겁지겁 쇠젓가락을 든 두 남자, 엄밀히는 멀쩡한 어른 남자와 어린 소년이 다급히 후루룩~ 면발을 한가득 입속에 밀어 넣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라면 먹을래 권했을 뿐인데---어쩌다 이리됐냐고. 연우는 자조가 밀려왔지만,

어차피 벌어진 거, 이기고 보자.

승부 욕을 불태웠다. 마찬가지로 두 눈을 반짝이며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꼬마 볼도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질 수 없단 결의를 다지며 젓가락 놀리는 속도를 올렸는데 얼마 안 가서.

“하하---이겼다!”

풉, 연우가 면발을 뿜었다. 이게 웬일. 완승을 외치며 젓가락을 턱 내려놓은 꼬마가 배를 쏙 내밀곤 배 두드리는 게 아닌가. 라면으로 가득 찼던 그릇은 말끔히 비워낸 채. 활짝 웃는 게 영 얄미웠다.

뭔 꼬마가, 라면을 이리 잘 먹어?

날밤 깔 때까지 해보자 말하고 싶었지만 어린 녀석을 고이 보냈다. 그러고 나자 저녁은 훌쩍 다가왔다.
볼그스름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거실 탁자에 한가득 서류를 쌓아놓은 수진은 밀린 업무 처리로 여념이 없었다, 오로지 노트북 화면에만 고정한 뒤통수를 슥 스쳐 가며 힐긋 살폈다.

탁.

냉장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쪼르륵.

물컵에 투명한 연갈색 보리차가 가득 차 넘실거렸다. 꿀꺽, 한 모금 들이킨 연우가 비스듬히 소파에 몸을 기대곤 이젠 서류를 훌훌 넘기는 수진에게 시선을 던졌다.

"뭔 일을 그렇게---."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매달리는지.

어깨너머로 수진이 들고 있는 서류를 보았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문장과 숫자들---원인이 불분명한 기시감이 차올랐다.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파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연우가 까닥, 고갤 기울였다.

"도와줄까?"

"----."

명령처럼 서늘한 투였지만 그건 그가 가진 본래 성향 같았다. 눈을 꾹 감았다 뜬 수진이 유려하게 잘빠진 얼굴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진짜, 이걸 진짜로 한다고요?"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그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진은 연우가 차분히 일하는 모습을 놀라운 심경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도 이 분야서 꽤 잘한단 소릴 들었다. 그런데 연우는 키보드 두드리는 속도, 일을 마무리 짓는 정확도, 한 방에 싹 정리하는 자료정리 스킬까지 모두가 남달랐다. 아니, 수준급이다.

그 덕에 순식간에 줄어든 서류들---밤을 꼴딱 샐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일신이 강림한 듯한 그를 보다가 문득, 의구심이 솟았다.

대체 뭐하던 사람일까?

원래 저런 일 하던 사람이었단 추측이 꽤 신빙성 있게 다가왔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리 잘할 수 있냐고. 자리에서 일어난 수진이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어쩌면 기억이 돌아오려는 걸지도 몰라.

"커피는 어떤 거 마셔요?"

왠지 인스턴트 스틱 커피는 안 마실 것 같아 물어봤다.

"샷 추가해서 에스프레소로, 없으면 아메리카노로."

입맛이 어디 안 가는지 취향은 분명했다. 딸그락. 찻잔 두 개에 커피를 따르다 그를 곁눈질했다. 일

하는 그는 차분하고 건조한 남다른 아우라를 풍겼다. 동생이 입던 빛바랜 녹색 트레이닝 복을 걸치고 있는데도.
서늘하게 다물린 입술은 상급자 포스가 묻어나고, 한 가닥 흘러내린 머리칼에선 섹슈얼한 분위기까지.

"이거, 마시고 해요. 너무 무리하진 말고."

내민 잔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가 사르르 미소를 그렸다. 잔을 매개로 서로의 손끝이 살짝 맞닿자 순간적으로 수진 속눈썹이 움찔 떨렸다.
연우 미소가 더 짙어졌다.

"맛있네."

그저 한 모금 삼키고 툭 내뱉은 말인데 왜 풍랑이 이냐고. 알 수 없단 얼굴로 수진이 헛기침을 했다.

"고생스럽게 너무 많이 도와주진 않아도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내일 사무실 나가 마저 해도 되니까."

"-----."

지퍼로 입을 잠근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답이 없다.

"원래 일감을 집에 가져와서 하진 않거든요? 이건 특별한 경우---."

속사포처럼 말하던 수진이 우뚝 말을 멈추고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기다란 손가락이 수척해진 그녀 뺨에 닿을락 말락 하고 있었으니까.

"그만."

어두운 시선으로 그가 말했다.

"몸 상하면서까지 해야만 되는 일이, 뭘까."

나직이 떨어진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안 하던 메이크업까지 하며 가렸는데도 그게 다 보였던 모양. 가느스름히 좁혀진 눈이 그녀 얼굴을 샅샅이 살폈다.

"난 그저---."

"다 안다고."

"뭘."

"변명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말해."

“말하면?”

“내가 마저 끝낼게. 이 일은.”

“----.”

창으로 흘러든 은은한 달빛이 그를 후광처럼 비췄다.

4화. 일에 미친 놈

“수상해~.”

“---얜, 뜬금없이.”

연 홍의 봄꽃이 휘날리는 야외카페. 꽃내음을 한가득 머금은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수진 잔머리를 휘감고 지나갔다. 친구 영주에게 새초롬히 눈을 흘긴 수진은 모락모락 김이 올라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따라 재스민 향이 기막힌데?

“어떤 놈이야.”

“컥, 콜록콜록---.”

마시던 찻물이 목에 걸려버린 수진은 기침을 연거푸 터뜨렸다.

“아무래도 수상한데에에---? 최근 차 할부금에, 할머니 건강에, 소장 등살에 우울을 박박 긁어모은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숨겨둔 남자라도 생겼어?”

“남, 남자라니---그런 거 아니야.”

수진이 손을 짤짤 저었다. 엉뚱한 소리 말라며. 초등 때 짝꿍이 된 후로 스물여섯 해 정말 끈끈이주걱처럼 이어져 온 소꿉친구였다. 영주는 평상시엔 순둥순둥한데 요망한 촉만 올라오면 눈치가 귀신 같은 구석이 있다.

“단지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옳거니! 뭔가 진짜 있기는 있구나!"

냉큼 말을 가로챈 영주가 빤히 그녀를 봤다. 덥석, 미끼를 물어버린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할 수 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푸는 걸 듣느라 영주가 바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 남자랑 한 지붕 아래서 지낸다고?"

"그게 의사 말론 일시적인 거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만~ 있는 거지. 사람도 선해 보이고. 사정도 딱해 보이고, 그래서."

"----."

한동안 영주는 침묵했다. 이 착해빠진 친구 같으니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낯선 남정네를 집에 들이냐고 말하듯이.

"됐고. 어떤 남잔지나 꼭 한번 보고 싶다. 아, 그래. 사진. 쪼금이라도 나온 사진 같은 거 있어?"

"그거라면---."

수진이 스마트폰을 열고 손가락을 휙휙 넘겼다.

"오, 여기! 일할 때 쓸려고 마트에서 찍은 것 중에 우연히 들어간 게 있긴 있네."

"이리 줘봐."

잡아채듯 폰을 뺏어간 영주가 빨려들듯 한참 보더니 천천히 고갤 들었다.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지 입을 벙싯하며 한참 뜸을 들였다.

"와---! 이 남자, 현실 남자야?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게 말이 돼? 이게?"

"좀 다르긴, 하지?"

종내엔 너털웃음을 흘리는 영주에게서 다시 폰을 낚아챘다.

"야, 그 정도가 아니고 섹텐 터진다, 진짜! 수녀도 아닌 게 남잘 돌같이 보고 그러더니, 안목까지 사라진 거니?"

그 후 낯선 남잘 왜 집에 들였냐는 추궁 따윈 싹 사라졌다. 외려, 나도 길 가다 그런 남자 좀 줍줍하는 행운 안 올까 주절거렸다.

"난 여자 홀리는 스탸일이다, 딱 그렇게 얼굴에 써 붙여놨잖아. 그 남자."

게슴츠레한 눈으로 영주가 말하곤 차를 홀짝였다.

**

달빛조차 숨어버린 새까만 밤.

한 남자가 슬쩍 주변을 경계하더니 나지막한 담장을 훌쩍 넘었다. 풀썩 부복한 자세로 내려앉은 남자가 서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한기가 도는 눈빛으로 창문 하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품에서 검은 마스크를 꺼냈다.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간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뭔가로 가볍게 툭, 잠금장치를 풀었다. 이어 스르륵--- 조심스레 밀어낸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 정돈 껌이라는 듯 가뿐한 몸짓. 창을 넘어 방바닥에 내려선 남자의 시선이 어스름한 한 지점으로 향했다.

침대 위 불룩 솟은 형체.

일이 잘 풀리는 게 마음에 찬 듯 남자가 눈꼬리를 접었다. 놓칠 수 없는 목표물이 눈앞에 있었다. 스윽. 뭔가 꺼낸 남자가 침상 형체를 찍으려던 찰나였다. 퍽! 난데없는 발길질에 손에 들린 것이 휭~ 호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크헉---!"

그와 동시에 멱살을 움켜쥔 손이 남잘 바닥에 처박았다. 터지는 외침을 간신히 억눌렀을 때 귓전에 꽂히는 나직한 음성.

"뭐야. 넌."

"----."

연우의 눈동자가 잠깐 문 쪽으로 돌아간 틈, 납작하게 깔린 남자가 화악 뒤집기를 시도했다. 그 후 한동안 드러난 달빛 아래 고요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날 아침, 해가 번쩍 떠오르고.

"으응, 몇 시지---어엇!"

탁상 자명종을 확인한 수진은 벌떡 일어나 믿기지 않는 눈으로 잠시 초침을 노려봤다. 탈탈 흔들어도 반응 없는 시계에 벌렁대는 심장을 애써 누르고 휴대폰을 찾았다. 손가락이 자꾸 삐끗해 액정 켜는 것도 여러 번 시도해야 했다.

"아---지각하겠네!"

자명종만 믿고 휴대전화 알람을 꺼둔 게 실수였다. 부리나케 화장실로 달려가다 멈칫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원래 이렇게 집안에 적막감이 흘렀나? 아니지. 이때쯤이면 먼저 일어난 연우 씨가 커피랑 토스트라도 먹고 출근하라고 불렀어야 하는데. 텅 빈 것처럼 방문은 고요히 닫혀 있었다.

아직 안 일어났을까?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가서 바짝 토끼처럼 귀를 대는데--- 벌컥! 방문이 열렸다.

"깜짝이야!"

놀란 수진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으응? 그런데 뭔가 탄탄한 것이 빠르게 감싸는 게 아닌가. 꼭 감았던 눈을 뜨고 고갤 서서히 들었다.

그린 듯한 목울대를 지나 반듯한 턱선. 그리고 느슨하게 올린 입꼬리 너머 반개한 눈으로 시선이 차츰 올라갔다.
움칫 눈이 마주치자 그가 붉은 입술로 피싯, 웃었다. 햇살에 부서진 얼굴이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인 채. 한쪽 눈가를 엷게 구긴 연우가 느린 숨을 내쉬었다.

"늦었는데."

"뭐얼?"

"출근."

"아 맞다!"

그제야 너른 품을 벗어난 수진이 꽃물처럼 붉어진 볼을 감싸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래도 토스트는 먹고 가라는 말이 뒤통수에 날아왔다.
다급히 화장실 수도 꼭질 콸콸 틀었다. 푸아. 연거푸 닿은 찬물에 달궈진 볼을 식히려 했지만 한참 동안 그대로였다.

잠시 후 철컹, 쾅! 하고 철문이 요란스레 닫혔다. 이어서 골목 어귀 어딘가로 달려가는지 콩콩대는 발소리가 연우에게 들려왔다.
거실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선 연우는 그녀가 멀어질 때까지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보고있어도 다시 보고 싶어질 만치 감질나는 것처럼.

바람에 꺾일 듯 흔들리는 맨드라미를 보자 지난밤을 떠올렸다.

낯선 침입잔 정체를 끝까지 말하지 않고 버티다 미꾸라지처럼 몸을 빼내 달아났다. 그저 우연인지, 감시했던 건지, 치밀한 계획하에 벌인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조간만 밝혀야 한다는 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머리칼을 헤집으며 답답함이 물밀듯 밀려온 순간.

'---넘겨라. 운영권을.'

"큭--."

어슴푸레 떠오른 말과 동시에 머리가 송곳으로 콱, 찌른 듯 아팠다. 아랫입술을 꽉 물며 참는데 돌연 두통이 가셨다. 서서히 그는 이마를 짚었던 기다란 손을 내렸다.

"운영권---?"

**

태성그룹 수석 비서실장실.

잔뜩 흐린 하늘이 비서실장실 통창을 가득 메우더니 어느새 빗방울이 후두둑 유리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마치 절규하는 얼굴 형상처럼.

"----도대체."

비서실장 우장만의 긴 한숨 소리가 널찍한 공간에 그렁그렁 울렸다. 몇 주째 주야를 가리지 않고 대표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어디로 간 거냐고."

바락 성질을 내며 의자 등받이에 고갤 젖혔다. 실종신고도 하고 혹시나 해서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없다, 없어. 감쪽같이.

"주차장에 차도 그대로 있잖아?"

다른 세컨드 카로 나 홀로 힐링 여행이라도 떠났나 싶다가도. 김한성은 휴대전화를 끈 채 이리 오래 그를 가만 내버려 둘 인간이 아니라는 걸 다시 상기했다.
위에서 다 내려 보는 듯한 잘난 투로, 휴일에도 태연하게 전화해 업무지실 내린 게 어디 한두 번 이라야지.

일에 미친 놈.

'전차'라는 별칭이 괜히 붙었겠는가. 회사엔 휴가 중이라고 어찌 둘러댔지만---점점 비서실장 수준에서 막을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심코 통창에 얼룩진 물 형상을 보던 장만은 문득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희뿌연 형상이지만 절규하는 것 같은 게 꼭 뭔갈 연상시켜서.

혹시---사고라도?

그러다 짤짤 고갤 저었다. 아니지. 아니야.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도 않았다. 손으로 턱을 쓱 쓰다듬던 그의 뇌리에 불현듯 누군가가 스쳤다. 기분이 묘했다.

김무성 전무.

"설마---?"

그가 뭔 일을 벌인 걸까. 벌떡 일어난 장만이 잰걸음으로 걸어가 방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을 때였다. 번쩍, 하늘에서 번개가 일더니 쿠르릉! 천둥이 울리고 칼날처럼 쏴아아 소나기가 쏟아졌다.

**

"모처럼 휴일엔---."

드디어 급한 일들을 끝낸 수진은 침대에서 판다 곰처럼 몸만 뒹굴뒹굴하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 파자마에 그려진 판다 곰이 힐끔힐끔 고갤 내밀고. 가끔 가느다란 팔이랑 작은 발이 쪼그만 침대 밖으로 삐져나갔다.

그러다가 애벌레처럼 똘똘 뭉친 이불 밖으로 손만 빼꼼 내밀곤 협탁 위를 더듬었다. 잡았다. 휴대폰.

"이게 낙이지."

액정 화면을 뚫어버릴 듯 한동안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그러던 중, 킁킁 이 건--? 솔솔 창밖에서 흘러온 향긋한 꽃내음에 코를 벌렁댔다.

담장 너머 하얀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벚꽃 향이 있었던가 모르지만 아마 지금쯤 공원이라는 공원은 죄다 벚꽃 잔치를 벌이고 있을 텐데.

펄럭, 이불을 젖혔다.

그리고 어디론가 기어갔는지 안 뵈는 슬리퍼 한 짝을 더듬더듬 찾았다. 귀퉁이가 닳은 살몬 핑크 슬리퍼였다. 끼익, 방문을 열었다.
연우는 자고 있을까? 다짜고짜 단잠을 깨우기도 그렇고. 일단 소파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걸쳤다.

"햐~, 날씨 참 좋네!"

방문 너머까지 잘 들리도록 최대치로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공원 가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겠는---걸?"

적막에 절로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혼자 가도 되지만 그도 판다 곰처럼 꼼짝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따분하리라 여겨 어렵사리 말 꺼낸 건데.

그때 화악, 방문이 열렸다.

5화. 심장에 해로워

우월한 비율의 남자가 성큼 방을 나오더니 비스듬히 기둥에 기대곤 팔짱을 끼었다. 둘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장난스러운 눈빛이 물었다.

“꽃 구경, 좋아합니까?”

“그야 당연히---.”

“그냥.”

“그냥?”

“졸라 대지.”

“-----.”

“뭘 그리 어렵게 가.”

왜 그 말 한마디 못 해서 망설이냐고 묻는 얼굴에 수진은 그저 빙그레 웃었다. 아니, 이보세요. 단잠을 깨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길 팍팍 풍기는 게 누군데요 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담한 호수를 낀 공원은 봄나들이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신나게 뛰어가는 아이들,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활짝 웃으며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수진과 연우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연홍빛으로 소담스레 꽃이 핀 벚나무가 죽 늘어선 길엔 바람이 불 때마다 사르르 꽃잎이 흩날렸고. 그때마다 여기가 고대 시인이 읊었다는 천국일까 싶었다.

무성한 꽃잎 사이로 쏟아진 햇살이 옆에 걸어가는 남자의 검은 머리 위에서 부스러졌다. 안 그래도 빛이 나는데 햇살까지 거드는구나. 시선을 의식했는지 연우가 그녀를 보더니 가까이 상체를 수그리며 속삭였다.

“느껴져.”

“뭘?”

“꽃. 구. 경 안 해본 거.”

“하---어떻게? 기억 안 날 텐데?”

“새로우니까.”

“---.”

“모든 게.”

우습다 넘겨버리기엔 뭔가 짠했다. 살짝 심각한 표정으로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걸 말하는 남잘 어째야 하나.

“그럼 참, 잘됐네요. 이참에 실~컷 볼 수 있으니.”

하하 그렇네? 하며 싱그러운 미소를 흘리는 그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는 건지. 꽃구경 따윈 하찮은 인생이었던 건지 아님, 꽃구경을 미처 할 틈도 없는 인생이었던 건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마침 저기, 공터가 있는데?”

연우 말에 참새가 방앗간을 향해 날아가듯 기꺼이 나무 그늘이 어룽대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양탄자 같은 촘촘한 잔디에 전망 좋은 호수까지 근접하다니, 고것 참 명당자리네 라며 연우 어깨를 찰싹찰싹 쳤다.

펄럭~ 돗자리가 휘날리며 깔렸다.
바람에 날아가려는 돗자릴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꾹꾹 눌렀다. 고운 꽃분홍 보자기로 앙증맞게 묶은 도시락은 특별히 연우가 싼 거였다. 라면 끓이기 성공 이후 부단한 실습 끝에 성장한 요리 솜씰 보여주겠다나 뭐라나.

“이 호수는---.”

뭔가 독특하다는 눈빛으로 그가 호수를 찬찬히 훑었다.

“물 색깔이 예쁘죠? 이걸 보려고 이 호술 찾는 이들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희귀한 옥반지 빛깔이네.”

“그죠? 호수만 봐도 예쁜데. 거기에 흥미 돋는 전설까지 더 있어요.”

“어떤?”

“아주 먼 옛날, 이 아름다운 물빛에 반한 선녀가 자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우연히 사냥터에서 사냥하던 왕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지 뭐예요.”

그가 피식 웃었다.

“왕자를?”

“대단히 잘 생겼나 봐요.”

딱 누구처럼 잘 생겼다고 말하긴 낯부끄럽지만. 혼잣말처럼 웅얼댄 수진은 꿈꾸는 듯한 눈으로 턱받침을 했다.

“그러다 여느 때처럼 목욕하던 선녀를 보게 된 왕자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딱하게도 선녀에겐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는 사명이 발목을 붙잡고 말았죠.”

엄청난 비밀을 말하는 첩보요원처럼 소곤소곤 말하는 그녈 그가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럼 헤어졌겠네?”

“네. 어쩔 수 없이. 그걸 안쓰럽게 여긴 옥황상제가 일 년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게 허락한 게.”

“겨우 한 번이라니.”

“이 호수에 무지개가 피는 때라고. 둘이 만나서.”

“대단한 전설이다.”

“그죠, 굉장하죠?”

어쩌면 여느 맑은 계곡만 가도 흔히 구전되는 전설일지 몰랐는데 그는 짐짓 진지한 얼굴로 들어주고 있었다. 따스함이 연 홍의 꽃물처럼 수진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흔한 데님바지에 흰 셔츠차림인 그가 소박한 돗자리에 정물처럼 앉은 모습은--- 내심 찬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증명하듯 호수 근방을 지나가는 여인들 시선이 한동안 그에게 머물면서 떨어질 줄 몰랐다.

수진은 어쩌다 한 봄나들이가 데이트처럼 돼버려 기분이 묘했다. 데이트다운 데이트 했던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고 남자랑 단둘이 공원에 나왔던 건 더 까마득했으니까.

“그만 쳐다보고,”

“뭘 봤다고.”

"자, 이제 먹어볼까."

피식 웃음 지은 그가 살며시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다. 연꽃처럼 펼쳐진 보자기 위에 뽀얗고 정갈한 도시락 두 개랑 빨갛게 잘 익은 딸기 생과일주스, 레몬 슬라이스가 담긴 물통이 자태를 드러냈다.

"닳진 않지만."

"----."

너무 빤히 봤나, 들켜 제 발 저린 그녀가 해죽 웃으며 먼저 뚜껑을 열었다.

"와---!"

알맞게 구운 베이컨에 도톰한 계란, 치즈가 담뿍 들어간 사각 김밥에 벚꽃처럼 방울토마토까지 토핑된 도시락이라니. 수진은 빙그레 웃었다. 여실히 그가 요리 솜씬 한 수 위라는 걸 인정 할 밖에.

내심 연신 감탄하는데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가 솔솔 흘러왔다.
포옥, 달뜬 포크로 김밥 하날 찔러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에 쏙 넣자 고소하고 간이 잘 밴 재료들이 씹을수록 존재감을 뿜어냈다. 진실의 미간을 찌푸리는데 연우가 붉은 입술로 피싯 웃었다.

"맛있어?"

"----."

입안이 가득 차 말이 안 나왔다. 연우의 짓궂은 눈빛은 얼른 결론을 도출하라는데.

"맛없군.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다 먹어야---."

날벼락 같은 말에 수진 눈이 보름달처럼 동그래졌다.

"---꿀꺽, 아니 그, 그게 무슨 망말."

말하다가 그의 눈빛에 어린 장난기를 보고야 말았다.

"먹는 걸 갖고 놀리면 벌 받는데."

눈을 흘기면서 말하자 연우가 씩 웃었다. 덩달아 희고 가지런한 치아도 드러났다.
뭔 남자가 웃는 것도--- 색기가 넘쳐?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향을 흠뻑 삼키듯 그가 깊이 숨을 들이켰다.

"지금은."

"----."

“뭐든지, 다 삼킬 거 같네.”

그 순간, 갑자기 일곱 빛깔 영롱한 무지개가 떴다. 유리알이 뿜어지는 것 같던 호수 한가운데 분수에서.

**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완만한 경사를 이룬 골목길을 소리 없이 올라갔다.
골목 주변은 오밀조밀 배치된 단독주택들이 저마다 독특한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배산임수 명당 입지를 자랑하는 손꼽는 부촌다운 모습으로.

끝없이 올라가던 승용차가 마침내 거대한 담장을 자랑하는 금장 대문 앞에 스륵, 멈췄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삐빅 기계음이 울림과 동시에 오버헤드도어, 차고 자동문이 지잉 올라갔다.

김무성 전무가 정원 계단을 올라가자 검은 슈트를 빼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회장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물관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은주전자에서 흘러나온 찻물이 쪼르륵 찻잔을 채우자 은은한 차향이 스멀스멀 풍겼다.

“----.”

흘깃, 김무성은 일인 소파에 느슨히 기대앉은 회장 눈치를 살폈다.
말없이 차만 홀짝이는 게 더없이 인자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긴장을 풀었다간 날벼락을 맞을 터. 경험상 저럴 때가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이 놓인 찬 잔엔 손도 안 대고 등만 곧추세우는데.

“살았다고.”

긁는듯한 낮은 음성이 귓전을 때렸다.

“그렇습니다.”

누굴 말하는 건지 수수께끼 같은 대화였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김한성. 그라는 걸. 갖은 풍파를 헤쳐온 고난이 새겨진 회장 얼굴에 잠시 균열이 일었다 사라졌다.

"허---."

"그런데, 기억에 문제가 있는 듯싶습니다."

"기억?"

"그게---과거를 싹 다 잊은 모양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일도 방해하지 못할 테고. 참으로 다행한 일 아닙니까?"

"김무성 전무."

"예?"

"미칫나?"

"----."

"어데, 그따위로 일하노."

돌연 휙— 회장이 찻잔을 던졌다.
날아간 잔이 미처 피하지 못한 김무성 이마를 턱, 맞히고 떨어졌다. 그 바람에 빤질빤질한 바닥에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전위예술을 펼쳤다. 주륵. 김무성 이마에서 뜨끈한 무언가가 흘렀다.

"지끼미, 뒤탈 없게 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돈은 만다 처 들이대노."

연속으로 날벼락 언사가 쏟아졌지만 그대로 잠자코 있었다.
이 정도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찻잔보다 큰 옥돌 재떨이가 날아왔던 걸 회상한 김무성은 실없이 웃었다. 그리고 다음 액션이 튀어나오기 전에 서둘렀다.

"이번엔 그룹 차원 이사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 말에 회장이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그래에? 가마이 앉아 밥만 처묵진 않았나 보네."

요행히 다시 폭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댄 회장이 입매를 비틀었다. 고갤 살짝 튼 김무성은 안도의 숨을 폭 내쉬었다.

**

'아버진 언제 와요?'

아름다운 얼굴에 말간 웃음을 지은 여인이 아이를 물기 찬 눈으로 내려 보았다.

'아마 우리 ---이가---때쯤이면.'

그 순간 번쩍, 연우는 눈을 떴다. 주룩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좀 전 장면은---꿈?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쯤에야 설핏 잠들었는데 한 여름밤의 꿈같은 꿈을 꾸다니.

"해독 주스 만들었는데, 먹을래요?"

반쯤 몸을 일으킨 그가 머리칼을 헤집는데 방문 저편에서 상쾌한 아침 공기처럼 낭랑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위잉, 위이잉—!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온통 주방을 점령하고 있었다.

"출근 안 하고 이 시간에 뭘 해?"

"헤헷, 오늘 월차 냈어요."

그러고 보니 월차를 돌아가면서 낸다고 말했었지. 바쁘게 사는 수진에게 월차밖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없나. 그런데도 저리 밝게 웃는 건 천성이 원래 밝다는 방증일 테고.
개수대에서 돌아선 수진이 별안간 풋, 웃음을 터뜨렸다.

"저기---."

"왜."

초승달 눈이 된 그녀가 세상 웃긴 걸 봤다는 것처럼 집게손가락으로 그의 머릴 가리켰다.

"저 머리---푸흡, 뭘 한 거예요. 혹시 머리칼을 올올이 번개에 구웠어요?"

그제야 말뜻을 눈치챈 그가 픽, 웃곤 긴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성의도 없이 빗어 넘겼다. 그거 하나 했을 뿐인데 세수 전인 게 맞나 눈을 의심케 할 만치 산뜻해진 연우.
토마토 액이 담뿍 담긴 주스 잔을 들고 꿀꺽꿀꺽 넘겼다. 그에 따라 복숭아씨 목울대가 꿀렁이는 걸 수진이 혹한 얼굴로 올려다봤다.

가뿐하게 주스를 비워낸 연우가 그녀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리곤 동작 그만 상태인 손에 들린 주스 컵을 슬쩍 빼앗았다. 그러고 있다간 잔 놓치겠다 싶어서.

"무척---맛있네,"

"----."

"주스가."

입가의 붉은 즙을 혀로 할짝 핥자 수진이 고갤 홱 틀었다. 이 무슨 사기 케인지, 심장에 해롭다 진짜 딱 그런 얼굴로.

"다, 다행이다. 입맛에 잘 맞는다니. 마침 토마토가 잘 익어서 갈아봤는데--- 참, 동생이 휴가 나온다네요."

얼른 화제를 돌리려는 의도가 빤히 보였지만 응해주기로 할까.

"---동생?"

아, 군대 갔다던.

"그런데, 나에 대해선 뭐라고."

"그건 염려 말아요. 미리 다 말했으니까."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긴 했지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스레 내민 액정 속 남자는 꽤 귀염 상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 찍었는지 꼬불꼬불 곱슬기 있는 장발에 친근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어때요? 제 동생."

"닮았네."

그래, 저 눈이 닮았네. 말갛게 반짝이는 게.

"**집으로 돌아온다니,** 꿈만 같아요. 이게 얼마 만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온다니 라는 말이 알알이 흩어져 머릿속을 휘젓는 기분이랄까. 뭔가 되살아날 듯 손에 잡힐 듯하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숨이 가빠왔다.

6화. 뭘까, 이 기분은

빠앙ㅡ!

빠아아앙!

요란한 자동차 경적에 연우는 힐긋 뒤를 돌아봤다. 골목길을 따라 달려오던 차가 휘청이던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끼익ㅡ, 멈춘 후 빼꼼 창문을 내렸다.

“야 이, 미친 쉐끼야! 똑바로 안 걸어?”

“지랄 말고 꺼져.”

거친 언사에 연우가 낮게 툭, 뱉자 상종하다간 큰코다치겠다 싶었는지 잽싸게 다시 창문이 올라갔다. 쌩 멀어져 가는 차를 보며 미친놈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다니, 하는데.

내가 왜, 걷고 있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암전된 기분. 그나마 어렴풋이 감지하는 건 어딘가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발이 향하고 있다는 거.
보도블록을 한참 걷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어딘지 낯익은데.

시선이 맞은편 높은 빌딩에 꽂혔다. 외관을 온통 담청색 통유리로 장식한 건물은 번덕이는 비늘처럼 고고히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끓는 주방에 선 수진의 시선이 힐긋 창밖을 향했다. 아직 연우가 안 들어와서. 어느샌가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된 연우라서.

자전거 페달 밟고 들어서는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어딜 간 건지 몰라도 곧 올 거야. 저녁 먹을 때도 됐으니까.
그러다 해 질 녘 창으로 재차 시선을 날렸다.

결국 에잇, 휘휘 찌개를 젓던 수저를 던지고 외투를 걸쳤다. 요 골목길까지만이라도 나가 봐야겠다며 수진이 마당으로 발을 내려놓던 때였다. 혹시 몰라 살짝 열어놓았던 대문 틈으로 누군가의 건장한 등이 드러났다.

“연우 씨?”

“----.”

“무슨 일이에요? 왜 거기에---.”

길 잃은 사람처럼 있냐고 하려다 말을 흐렸다. 연우 표정이 진짜 길 잃은 것처럼 보여서. 영영 대답 안 할 것 같던 그가 맥락 없는 한마디를 던졌다.

“묘했어.”

"---?"

"어떤 빌딩을 봤는데."

"봤는데?"

"왠지 낯익었어."

"아, 그럼 혹시---."

하, 연우가 마른 한숨을 흩뿌렸다.

"그건 아냐. 날, 알아보는 이가 아무도 없었거든."

그의 기억이 돌아오길 바랐을까. 바랐다, 그것도 무척. 하지만 한편으론 좀 더 이대로 머물길 바라기도 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돌아볼 새도 없이.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연우 씨?"

"----."

그가 천천히 고갤 돌리며 시선을 맞췄다. 빨려 들어갈 듯 아름다운 눈동자 안에 그녀가 담겨서 동시에 묻고 있었다.

"돌아가면."

"뭐 더 편하게 살고, 더 자유롭게 살고. 더 여유롭게 막 방바닥도 굴러다니면서 살겠---."

"그런데 왜."

"----."

"눈빛이 그래."

"뭘."

"아쉬워하고 있잖아, 날."

바짝 다가온 시선에 부끄러워진 수진은 눈동자만 굴렸다. 독심술이라도 부리나 어찌 그리 잘 아냐고 묻고 싶었다.

"말해봐."

“연우 씨---.”

“널, 좋아해.”

순간, 수진은 숨이 멎은듯했다. 그러다 뒤늦게 무슨 말인지 인지한 심장이 마구 두근거려 가슴을 꼭 감싸 안았다. 아직 이런 고백은 이르단 심정이 들다가도 타박타박 걸어가 묻고 싶었다. 넌 어떠냐고.

“어휴, 무슨---내가 언제---.”

“좋아한다고. 내가 너를.”

산듯한 봄바람처럼 담담한 투였다. 그냥 스쳐 가는 일상어라고 착각할 만치.
살풋 눈을 반개한 연우가 낮게 고갤 기울였다. 성큼 다가오는 입술을 밀어내고 싶지 않아서, 다음을 직감하면서 그대로 머물렀다.
살포시 입술이 포개졌다. 맞닿은 입술 감촉이 촉촉하고 말캉했다. 벚꽃잎처럼 부드럽고 살랑이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해 질 녘 붉은 노을이 그의 머리칼을 붉게 물들이는데, 그가 귓가에 살며시 다시 속삭였다.

“좋아해.”

첫 키스였다.

**

바다를 낀 도로를 미니카가 달렸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창 밖은 조금 전 까지만 해도 진청색 바다였는데 금세 샛노란 해가 수평선을 넘고 있었다. 난데없이 유조선에서 울리는 뱃방귀 소리에 동그란 어깨를 움츠린 그녀가 힐긋 연우를 향해 곁눈질했다.

“새벽부터 일찍 서두르느라 잠을 설쳤을 텐데, 괜찮아요?”

“도심을 벗어나니까 오히려 좋은데.”

“그렇다면 다행이다. 아마 할머닌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새벽잠이 없으셔서.”

피식 엷게 웃은 그가 뭔 말을 해도 사랑스럽다는 눈길로 수진을 바라봤다. 고백 이후 죽 저렇다. 몽글몽글한 기분에 젖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 했다.

때아닌 ‘촌캉스’를 제안한 건 그녀였다. 원색 꽃무늬 티랑 일바지를 걸치고 반질반질한 평상에 누워 밤하늘 별을 감상할 걸 상상만 해도 좋았으니까.

어느샌가 자그마하고 빛바랜 한옥이 저만치서 손짓하고 있었다. 역시나 손녀 차를 발견한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온다.

“할머니!”

“아이고, 어여 와라. 눈깔 빠지는 줄 알았구먼.”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잡으며 할머니가 활짝 웃었다.

“헌디---이 젊은 양반이?”

“예. 연우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연구가 싱긋 웃자 미모가 더욱 빛을 발했다. 사람 무장해제 시키는 그 얼굴에 흠흠, 젊은 사람이 머이리 잘났냐며 할머니가 연우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구마, 와이리 전신이 다 훤칠하노? 어쨌거나 잘 왔네. 잘 왔어.”

그간 사정은 사전에 말씀드려서 할머닌 더 가타부타 말을 보태지 않았다.

“야야 창우야, 싸게 나와봐라.”

“---누나?”

그제야 삐걱 방문이 열리고 눈곱 떼는 남자가 얼굴을 빼꼼 디미는데. 눈곱이 붙어도 희멀겋다고 할 수 있는 건 영락없는 남매지간 닮은 꼴이어서.
휴가차 나온 동생이 먼저 와 잤던 거구나.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우면서도 볼살이 빠진 건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다.

“창우, 그새 머리 좀 자랐네?”

“에이, 아직 멀었어.”

쑥스럽다는 얼굴로 짧은 머릴 쓱쓱 문지르면서 힐긋 연우를 보는데 눈빛에 경계가 어려 있었다. 남자끼리만 통하는 묘한 신경전에 수진은 그만 푸스스 웃었다.
볼 때마다 아직 한참 어린 동생으로만 여겼는데 이럴 땐 제법 성인 남자 태가 났다.

“아유 마, 뭘 그리 멀뚱멀뚱 섰나? 어여 들어오지 않고.”

들마루엔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직접 캔 더덕무침에 반지르르 기름기 도는 고등어구이, 시원한 나박김치---그야말로 맛깔스러운 한 상이다.

연우는 흰 쌀밥을 푹 떠서 고등어, 더덕을 올리고 한입에 넣은 다음 오물오물 씹었다. 세상에서 가

장 맛난 아침 밥을 먹는 사람처럼. 그걸 망연히 보던 창우가 살그머니 입술을 벌렸다.

“와, 절라 잘 먹네.”

도란도란 함께 아침 밥을 먹는 동안 경계심은 저만치 도망간 모양새였다. 밥공기를 공양하듯 말끔히 비워낸 연우가 수저를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맡길 일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무슨 소리고? 그냥 맘 푹 놓고 놀다가거래이.”

“아닙니다. 밥값은 해야죠.”

“홀홀---그랴?”

됨됨이가 맘에 차는지 마냥 할머닌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될성부른 놈이야, 옹알이처럼 뇌까리기까지 하면서.

잠시 후. 수진과 연우는 개울가 철 지난 하얀 이팝나무 꽃길을 걷고 있었다. 알록달록 꽃무늬 티에 일바지, 밀짚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조금만 더 가면 고구마 텃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런데---세상 불공평하게 무슨 남자가 저런 차림도 근사하냐고. 시즌 SS 컬렉션으로 특별히 고안된 글로벌 명품을 걸친 듯한 비주얼 아닌가.

“그 옷, 어때요?”

“좋은데?”

“----.”

“그리고 아주 편해.”

히죽 웃는 데 진심인 것 같았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집에서 청소할 때 입어도 좋겠다는 첨언까지. 수진은 더 할 말을 잃었다.

이윽고 고구마밭에 도착한 그들은 한동안 실한 고구마 캐기에 돌입했다. 한숨 돌리려고 미어캣처럼 고갤 드니 언제 갖다 두었는지 밭두렁에 막걸리 새참이 기다리고 있었다.

죽죽 잘 늘어나는 편한 일바지라 황토 위에 철퍼덕 앉기에도 부담 없어 좋았다. 한 잔 죽 들이켜 마신 연우가 모자를 휙 벗더니 벌렁 누웠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얼굴은 더없이 평온한 채로.

“안 더워요?”

“더워.”

“그럼 그만하고 들어가---.”

“더운데, 너무 더운데--- 좋은 건 뭘까.”

이곳은 가로등 불빛도, 편의점도 없고 인적조차도 드문 곳이지만. 수진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도시를 벗어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감 같은 거 아닐까.

“육체노동이 주는 묘한 기쁨도 있죠?”

“아니,”

“----.”

“그보단 너랑 있어서.”

살랑, 이슬을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가늘고 까만 연우의 머리칼을 나폴 흩날렸다.

“나랑?”

“응. 너랑.”

기다란 손가락이 아무렇게나 머리칼을 쓸어 올리다 멈칫했다. 그리고 시선이 찬찬히 그녀 얼굴을 훑었다. 해 질 녘 전신이 불그스름 물든 남자는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그렇게,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

연우는 그 자리에--- 다시 왔다.
얼마 전 우연히 봤던 그 빌딩이 머무는 자리에.

내부까지 들어가 봤지만 아무도 일도 없어 그냥 다시 되돌아 나와야만 했던. 뭔가 뒤끝이 찜찜했던 바로 그 빌딩.

이제 연우는 수진에게 당당히 서고 싶었다. 그러자면 먼저 나를 되찾아야만 했고. 바로 저것이 그 열쇠가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감이 들었다.
블루 유리에 햇살이 반사되자 그가 설풋 눈살을 찌푸렸는데. 툭, 떨어진 시선 끝자락 출입구 회전문이 빙글 돌았다.

들어가 볼까?

문득 그런 기분이 들었다. 마침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뭔가 심각한 소문이라도 들었는지 웅성대면서. 그중 일부가 흘깃 그를 봤다. 연우는 마음을 굳히고 도로 위로 발을 내밀었다.

빠앙—!

날카로운 경적 음과 동시에 회전문이 한 번 더 빙글, 돌았다. 말끔한 슈트에 아담한 체격을 지닌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다. 누군갈 찾는지 주월 두리번대던 남자가 순간, 고장 난 목각인형처럼 삐꺽 고갤 돌렸다.

허공에서 둘의 눈이 마주쳤다.

"---."

"---."

점점 커지는 남자의 눈. 주의력이 흐트러졌다.

빠아앙—!

끼이이익---!

찰나 턱, 하고 뭔가에 부닥친 연우 몸이 붕 허공으로 떠올랐다. 하얀 손가락 사이로 구름이 잡힐 듯 가까웠다. 구름 너머 누군가 손짓했다. 아, 이런---흐트러진 머리칼이 눈을 가리려고 하는 순간 기도하듯 외쳤다.

안돼---마지막으로 너를.

꼭 봐야만 하는 보고픈 얼굴이 점차 흐려졌다.

"---대표님!"

7화. 천년 같은 몇 초

사각사각--- 툭, 무의식중에 볼펜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책상에서 멍하니 굴러떨어진 펜을 바라보던 수진은 괴이한 기분에 움찔, 몸을 떨었다. 밖은 온통 새까맣고 째깍째깍, 시계 초침만 흐르는데. 또다시 연우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말도 없이 이리 늦다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퇴근하고 어두운 집안에 들어섰을 땐 여느 때처럼 잠시 외출했겠거니 했다.
그런데 어느새, 차가운 밤은 더욱 발길을 재촉하고 있고. 연우는 안 보이고. 톡톡---, 갈퀴로 가슴을 훑듯 불안감만 엄습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 리가---없다. 아니, 반드시 없어야만 해.

"그래, 이럴 때가 아니지."

벌떡 일어난 수진은 외투를 펄럭이며 한쪽 팔을 껴 넣었다.
그리고 대문을 벌컥 연 다음 어두운 밤길을 달렸다. 찬 밤공기가 후욱 뜨겁게 뱉은 숨결을 흩트리는데,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만 달려가는 그녀 머릴 비추고 있었다.

**

기하학적인 무늬가 아로새겨진 현관문이 스륵 열렸다.

이제 막 그 문으로 들어선 한성은 주변을 슥 훑었다. 주인이 한참 집을 비운 걸 증명하듯 적막한 공기가 폐로 깊숙이 스며든다.

"기억, 나세요?"

뒤따라 들어선 장만이 의구심을 담고 물었다.

"내가 뭘---."

한성이 널찍한 실내를 뚜벅뚜벅 걸었다. 고급스러움과 깔끔함, 간결함이 어우러진 실내장식은 지극히 군더더기가 없었다.

"잊었나?"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길 잃은 강아지처럼 도로에 서 있다 교통사고나 당하고. 기적적으로 큰 부상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아마 대표님은 조상이 나라를 구했---."

"아파---."

"예?"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만 떠들고 가."

"혹시 후유증이라도 생긴 거 아닙니까? 다시 주치의한테 연락을---."

“장만.”

“네에?”

“너만 가면 된다고.”

입 벌린 장만을 내버려 두고 와인바로 걸어간 한성이 와인 저장고를 달칵 열었다. 익숙한 몸짓으로 병 하나를 쓱 빼든 그가 우아한 잔을 길쭉한 손가락으로 집었다. 금세 쪼륵, 발간 액체가 유리잔을 휘돌았다.

병원 가자고 더 설득하는 걸 포기했는지 장만이 바 의자에 털썩 엉덩이를 걸쳤다.

“저도 한 잔만.”

“----.”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것도 아닌데 한성이 우겨서 이른 퇴원을 한 상황이었다. 누워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
자릴 비운 사이 많은 것이 홱홱 바뀌고 있었고. 호시탐탐 대표직을 노리던 김무성 전무는 대표 자릴 꿰찼고. 그 바람에 회사는 산으로 갔고.

“대표님이 돌아온 걸 알고 다시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환영해 준다면, 응해야지?”

잔을 든 한성이 거실 통유리 창으로 느리게 걸어갔다.
그러자 칭칭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군데군데 생채기가 드러난 얼굴로 유리창에 고갤 내밀었다. 그 너머 어둠의 장막이 짙게 깔린 밤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드러내는데---뭔가 허전해.

“뭘까.”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은 이 기분은.

“어디서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까? 혹시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죠? 악—그렇다고 때릴 것 같은 그런 표정까진.”

“다 마셨으면.”

급기야 한성은 장만이 들고 있던 술잔을 턱 빼앗았다.

“그만 가지?”

“내 참. 갑니다, 가요.”

이런 식으로 사람 쫓아내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입는데 라며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현관 문턱을 넘기 직전인 장만을 불러세웠다. 그러자 가라고 득달할 땐 언제냐고 말하듯 뚱한 얼굴이 힐끗 돌아봤다.

참, 다 커서 잘 삐지기는.

“고마워.”

“에?”

“고맙다고. 그간 도와줘서.”

“----.”

믿기지 않는단 얼굴이 한성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결국 진심이라는 걸 확인 한 장만이 재깍 돌아섰다. 안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아 뭐, 당연히 해야 할 걸 했을 뿐인걸요.”

**

“수진--씨.”

“----.”

“수진 씨?”

혼을 어디다 빼 논 사람처럼 수진은 망연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이 슬로모션으로 눈에 어른거려서. 그러다 소장이 엄지와 검지를 딱 부딪치자 벌떡 고갤 치켜들고 예에?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것 좀 검토해달라고.”

“예에---.”

“---뭔 일 있어? 불러도 대답하는 게 느리고---혈색도 창백하네. 힘들면 좀 쉬었다가 해.”

팀장이 서류를 건네주며 수진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아. 아녜요. 괜찮아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사무실 가운데. 정물처럼 서서 서류 속 한곳 만 뚫어져라 보는데 지나가던 형석이 봤는지 어깨를 툭 건드렸다.

“석상입니까?”

“깜짝이야, 무슨---,”

“좀 전부터 한 곳만 보고 있잖습니까?”

“----.”

결국 수진은 서류뭉칠 탁상위로 내려놓았다. 그랬다. 알맹이 빠진 빈 껍질처럼 혼이 딴 데 가 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같던데.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맞아요.”

“----?”

“로봇. 어차피 뒤에서 쑥덕대면서 부르잖아요. 뚝딱 영앤 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전담 로봇이라고.”

못 말리겠다는 얼굴로 형석이 고갤 젓더니 휘적휘적 걸어갔다. 큰소리치긴 했지만 사실 요즘 예전만큼 일을 못 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지. 실은 너무나 빤히 잘 알았다.
나간 자리가 들어온 자리보다 더 크다더니 딱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냐고. 마음을 혼자만 준 건 분명 아니었는데. 삼천포로 빠진 상념을 되돌린 수진은 지하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메뉴로 그나마 술술 잘 넘어갈 것 같은 국수를 고른 후 수양버들처럼 비치적거리며 국수 전문점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금세 나온 뜨끈한 면을 돌돌 감아 입에 넣으며 주변을 흘깃거렸다. 점심시간이 좀 흘러서인지 식당 안은 한적했고 한쪽 벽면엔 TV 화면이 출렁대며 돌아가고 있었다.

빡빡, 점원이 탁자 닦는 걸 보다 시선을 돌렸다. 국수 한가락을 들던 수진은 무심코, 움직이는 TV 화면 모션에서 시선을 멈췄다. 너무나 익숙한, 꿈에서라도 다시 듣고 싶은 나직한 울림 좋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눈을 끔벅끔벅 뜨던 수진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무심하게 머리칼을 넘기는 화면 속 남자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연우였다. 틀림없이 그였다.

불현듯 수진은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느라 입을 턱 막았다.

[태성그룹 대표로 다시 복귀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한성 대표님.]

[소감이랄 게 없습니다. 본래 자릴 찾은 것뿐.]

그답게 무감한 투로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은 왠지 낯설었다. 맞춤 슈트를 기막히게 착 붙게 입은 거 빼곤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건 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이름이--- 김한성? 그게 본래 이름이었구나.

그러다 옆자리에 딱 붙어 선 미모의 여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매혹적인 미소를 장착한 채 줄곧 그만 바라보고 있다. 비서인가? 비서치곤 복장이 화려한데. 별 사이 아닐 거야. 그새 딴 여잘 만났을 리가 없다고 되뇌면서 수진은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그러고 보니 김한성이란 이름은 익히 들어 본 이름인데? 그가 바로 태성그룹 대표 그 김한성이었다고? 어쩐지 범상치 않은 기운이 풀풀 풍기더라.

태성 그룹은 그쪽 사정에 문외한인 그녀도 들어 본 적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자랑하는 그룹이었지만. 김한성 대표는 얼굴을 언론에 비치는 일은 극히 꺼린다고. 역시나 지금도 못마땅한 기색이 완연했다.
황급히 수진은 스마트 폰 액정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돌'로 빙의해서 엄지손가락을 한동안 굴렸다. 그러다가 순간, 어떤 기사자료에서 입을 떡 벌린 채 멈췄다.

"뭐라고? 대표 복귀전 기억을 일부 잊은 거로 의심된다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

기함할 노릇에 스멀스멀 열감이 등줄기를 타고 목까지 올라왔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고강한 울분이랄까.

어쩐지 연락 한번 없더라니.

식당 화면에선 연우가, 아니 김한성이 슬로모션으로 미소를 그리며 뭔가 말하는데, 더 이상 뭔 말인지 들리지 않았다.

"이대론 안 돼---."

수진은 멍하니 풀린 목소리로 뇌까렸다. 그냥 이대로 놓쳐버리기에 그는, 태성그룹 김한성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다.

**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으리으리한 태성 그룹 면접장에 지원자들이 일렬로 나란히 앉아 심사원 질문에 차례로 대답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긴장된 표정이 은연중에 드러나는데, 수진은 비교적 차분한 얼굴을 지켰다.

왜냐. 이 분야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지. 이게.

이처럼 큰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협업해 본 경험도 있었고. 박박 긁어모은 정보통에 따르면 수진 같은 경험자를 원하고 있다 했다.
사무소에 사표를 내고 태성그룹 건설 계열인 이곳에 도전하기로 한 건 잘한 거라고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며 불안을 잠재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입사하는 데만 성공하자. 그것만 되뇌는 데---, 지원들이 차례로 대답하는 걸 듣고 있자니 서서히 초조감이 몰려왔다.
예상보다 다들 스펙이 빵빵하잖아? 이대로 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던 그때, 한쪽 방문이 달칵 열렸다.

심사위원인가?

말쑥한 감색 슈트에 얼핏 봐도 훤칠한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햇살이 후광처럼 부서지는데 그가 서서히 지원자들 쪽으로 고갤 틀었다.

“——!”

연우, 아니 김한성이다.

그가 여긴 어쩐 일일까. 내내 뇌리를 배회하던 남자가 환상처럼 눈앞에 나타나자 수진은 아랫입술을 감쳐물었다. 아직은---, 그래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갑작스레 이리 맞닥트릴 줄이야.

차분한 눈길로 한성이 지원자들을 죽 훑었다. 그러다 수진에게서 멈췄다. 천년 같은 몇 초가 흐르고 목울대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까닥, 고갤 기울였다.

“----.”

“----.”

모조리 주변이 하얗게 바랬다.

8화. 필연은 만드는 거

알아보는 걸까?

내심 기대치를 높이는데 아---시선이 다른 지원자에게 넘어갔다. 이걸 안도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수진은 헷갈릴 지경에 빠졌다.

생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도 마음에 남는 사람은 드문데. 그는 그녀 마음에 깊은 발자국을 찍은 남자였다.
당당히 내가 널 구했고, 좋아한다 고백까지 한 사이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친년 취급받거나, 돈 노리고 달려든 사기꾼 취급 안 받으면 다행일 테지.

그의 신분이, 배경이 그런 모양새로 몰아넣고 있었다. 설사 증거를 어떻게든 찾아 내밀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는데. 수진이 원하는 건 그의 마음이었다. 그녀를 아꼈던.

마른 한숨을 포옥 내쉴 때였다. 커다란 신발이 무심이 다가오더니 우뚝 멈췄다. 그러자 처신의 달인급으로 벌떡, 일어난 심사위원이 대표에게 자릴 내줬다.

“여기 앉으십쇼.”

바로 수진 맞은 편에 느리게 착석한 한성은 차분히 수진을 응시했다. 감정 조각이라곤 없는 눈빛으로.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심사위원으로 나섰는진 모르지만. 사무치게 그리웠던 얼굴을 가까이 보자 점차 희열이 가슴에 차올랐다. 가만히 얼굴을 쓰다듬고 싶었다. 반듯한 이마에서 우뚝한 콧날, 말캉한 붉은 입술까지.

“설계사무소 경력으로 잔뼈가 굵었군.”

그가 입사 지원서를 죽 훑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직접 사무소를 차려도 될 텐데.”

“----.”

“굳이 지원한 이유는?”

널, 보려고.

"----너무 보고 싶어서."

"---음?"

"아, 그게---좀 더 넓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튀어나와 얼른 집어넣었다.

"아."

픽, 입술 끄트머리만 올려 웃는 얼굴에 짤짤 어깰 흔들고 싶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 뜨거운 온천탕에 방금 들어간 듯 단전에서 열이 확 뻗쳤다.

"이번에 특별히 신규 프로젝트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

"맴버로 참여해 볼 의향은?"

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정도 없이 들이닥친 거였어.
수진은 대표가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팀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여겼다. 아무래도 그와 자주 맞닥뜨릴 확률도 높았고.
그런 거 아니라면 이 거대한 그룹에서 평사원이 대표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일이 있을까? 안 그래도 어떻게든 마주할 구실을 만들어 볼 참이었는데 절호의 기회로구나.

"얼마 주는데요?"

"----!"

대뜸 대표에게 월봉을 묻는 강심장 신입 예정자라니, 한성이 헛웃음을 흘렸다. 보기보다 당찬데? 영락없이 그런 표정으로.
인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웠으니 생계가 해결되는지까진 알아야 할 거 아닌가.

"---그건, 고용 계약서 작성 때 팀장이랑 얘기하도록 하고."

"놀라셨다면 미안해요. 당장 내야 할 청구서가 쌓여 있어서. 그런데---."

"또 뭐, 다른 거라도?"

"여자친구 있어요?"

"---!"

몸을 뒤로 뺀 한성이 삐딱한 시선으로 팔짱을 꼈다. 어디 그에게 들이미는 여자가 한둘이겠냐만 면접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여잔 난생처음이라는 딱 그런 몸짓.

"이수진 씨."

수진이 생긋 웃으며 손을 짤짤 내저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대표님 직속 팀원으로 일하면 눈코 뜰 새 없을 텐데. 이 업계에서 잔뼈 굵은 '여자 사람 친구' 있으면 함께 협업해 보고 싶어서."

"----."

진짜, 그게 다냐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일단 돌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일 잘하겠다는데 뭐라 하기도 뭣하니까.
가끔 떠도는 찌라시에 따르면 김한성은 결벽에 가까우리만치 여잘 멀리하는 남자라는데. 미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봤냐고.

어찌 얼버무린 것과 다르게 기실 수진은 무심코 튀어나온 말이 예전 우연히 본 어떤 허기진 장면에 멈추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기자와 인터뷰할 때 훤칠한 한성 옆에 찰떡처럼 붙어 서 있던 그 여인.

한성이 살풋 반듯한 미간을 찡그렸다.

"혹시 나를---만난 적 있습니까?"

버스 안 듬성듬성 앉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단한 그림잘 어깨에 한 움큼 얹은 채였다.
흔들리는 차창으로 비가 후두둑 들이쳤다. 면접용 하이얀 블라우스가 젖는 데도 아랑곳 안 하고. 수진은 하나둘 켜지는 뿌연 도시 불빛에 물끄러미 시선을 던졌다.

"연인 찾겠다고 직장도 때려치워, 자존심 버린 민낯으로 대면하는 부끄러움도 때려치워, 어쭙잖은 질투도 때려치워---."

자기 비하 같은 라임을 읊조리다 마지막 건은 아직, 미련이 남았다고 자조했다.
좀 전 한성의 마지막 질문.

나를 만난 적 있냐고? 당연히 있지. 그걸 말이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그리 말할 순 없었다. 무슨 의도로 그런 걸 물었는진 알 길 없지만.

한성의 내면 어딘가, 무의식의 강물에 그녀가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든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어. 그리 다짐하는데 수진의 시계가 순식간에 과거 한 지점으로 돌아갔다.

'우린 꼭 만나야 했던 필연 같아.'

흐드러지게 핀 새하얀 연꽃을 배경으로 연우가 했던 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연꽃이 핀 연못으로

연우랑 연을 심으러 갔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진은 담뿍 웃었다.

'필연은 만드는 거야. 난 그리 믿어,'

자그마한 '백련당' 정자 아래서 연우가 그녀 가까이 고갤 숙였다.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유리알같이 투명한 눈빛을 빛내며.

그니까 넌,

그런 말간 얼굴로 태연히---

수월히.

너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만들어.

그리고 수진 얼굴 가까이 다가오더니 살포시 입맞춤했던 연우.
공간을 떠돌던 연꽃향이, 은은한 그의 체 향이 가시지도 않았는데---그가 김한성이라는 이질적인 남자로 수진 앞에 다시 나타날 줄 상상이나 했을까.

어쨌거나 첫 번째 고빈 넘겼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가 나타나 준 바람에. 떨어졌다면 어쩔 뻔했나, 감정에 사로잡혀 대뜸 사표부터 던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뒤늦은 후회를 했을 땐 이미 면접장에 들어선 뒤였다.

ㅡ이번 정거장은---.

"엇!"

고장 난 레코드처럼 삐빅거리던 기계음이 흘러나오자 흐릿했던 눈동자에 초점이 빠르게 돌아왔다. 발딱, 수진은 일어섰다. 빗물에 젖은 버터 옐로우 정류소 팻말이 집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

태성 건설의 야심 찬 프로젝트팀이 완전체로 꾸려졌다. 몇 주 내내 회의를 거듭하던 수진은 한숨 돌리기 위해 회의실을 나왔다. 또각또각, 휴게실로 걸어가는데 문득 의문이 들었다.

한성은 왜 안 보일까. 대표라 이것 말고도 일이 많겠지,
그렇게 조급함을 달래며 휴게실 문을 달칵 열었다. 사방이 부티가 잘잘 흐르는 회사라 그런지 휴게실까지 크고 호화로웠다. 무슨 대형백화점 특별 고객 라운지인 줄.

쪼르륵 온수를 받자 말간 녹 빛이 잔을 휘돌았다. 즐겨 마시는 말 차를 한 모금 머금던 때였다. 살짝 열린 휴게실 문 저편, 수진의 시선이 꽂혔다.

"----!"

익숙한 형상이 아른거리는 게 아닌가. 놀라 무심결에 들이킨 찻물에 목구멍이 다 화끈거리는데 남자를 먼저 알아본 심장은 가늘게 떨고 있었다.
회의실로 걸어가던 말쑥한 장신의 남자가 멈춰서서 팀장에게 뭔가 지시하는데. 뭔 일일까. 잘 부탁한단 말만 남기고 여태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렇게 대표님께서 몸소 방문해 주시고."

황송하단 얼굴로 김한성에게 바짝 붙어 선 팀장이 아양을 떠느라 바빴다. 그러거나 말거나 깔끔한 손톱을 드러낸 가지런한 손은 서류를 훌렁훌렁 넘겼다.

순간.

멈칫한 한성이 사무실을 휙 둘러봤다. 이크! 수진은 휴게실 문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왜 숨었지. 그런 이유 따윈 고려할 틈도 없었다.
모순된 어떤 감정이 무심결에 올라왔을까?
기실 지금의 김한성은 예전의 연우와 미묘하게 달랐다. 날 선 면도날처럼 예리한 면이 더 도드라진다고 할까. 그런다고 놀다 들통난 어린아이처럼 굴다니.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일단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직한 미성이 바로 옆에서 말하듯 또렷했다.

"이수진 씨!"

눈친 밥 말아 먹었나, 안 뵈면 쉬는 줄 알아야 할 텐데. 날벼락같이 팀장이 불러댔다. 듬직한 체격답게 부르는 소리도 우렁차기 이를 데 없다. 쭈뼛대던 수진은 마지못해 슬며시 고갤 빼꼼 내밀었다.

"네에---?"

"이리 좀 와봐요. ---수진 씨라면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걸어가는데 수진과 한성의 시선이 맞닿았다. 심장이 떨리고 얼굴은 불그레 화끈거렸다. 그가 준수한 입꼬릴 슬쩍 올렸다. 생쥐처럼 문기둥에 숨었던 걸 알았다는 듯.
떠도는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는지 팀장이 활짝 웃었다.

"이번 프로젝트 현장 조사를 맡아 줘야겠어."

"제가요?"

"어---."

이거 원래 다른 팀원이 맡기로 된 거 아니었어?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얼떨떨했지만 팀장을 보아하니 이미 결론 난 거 통보만 하는 모양새였다.

“그게 말이야, 대표님께서 손수 콕 집으셨네.”

하마 입 팀장이 시익 웃었다.

“수진 씨를.”

현장 나가 진두지휘할 예정이었던 한성 근처를 배회하긴 안성맞춤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다. 현장 경험 쌓고 싶어 하는 팀원이 많았기에.

해서 경험 많은 수진은 이번 건만 다른 팀원한테 양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고.

“아 왜, 팀원 중에선 수진 씨가 가장 현장 경험 많잖아? 그러니 딱 맞춤이야? 아니야?”

김한성이 홱 돌아서더니, 길 다란 기럭지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을 던졌다.

“주차장에서 기다리죠.”

9화. 꿈에도 몰랐다.

확, 액정에 ‘김한성’이란 이름이 뜨면서 지이잉—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진은 오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입사 후 자연스레 비상 연락망으로 알게 된 대표 연락처였다. 언젠가 통화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이리 빨리 그런 순간이 올 줄이야.

“네. 대표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룹 실세 대표한테 잘 보이려는 팀장 등쌀에 조사 자료를 모조리 모으던 중이었지만. 냉큼 말했다.

“다 됐어요. 곧 갈게요.”

“성격 급한데. 난.”

그리고 군더더기도 싫어하지.

아니나 다를까 간결하게 통화가 종료됐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로 수진은 들떴다. 그

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일까. 그리고 혹시 모른다. 운이 따른다면 그의 기억을 되돌릴 힌트라도 한 줌 얻을지.

서둘러 복숭아색 재킷에 팔을 꿴 수진은 끄트머리가 닳은 담갈색 서류 가방을 추슬러 멨다.
그러고 나오다 아차, 외치며 되돌아가 노트북 충전기를 챙겼다. 급하면 이렇지만 까라면 까야지. 뭐.

"어---?"

엘리베이터 앞에 선 팀원 지근이 샐샐 웃으며 수진을 맞았다. 포멀한 베이지 슈트에 곱슬곱슬한 머리칼, 부드러운 갈색 눈으로 슬쩍 윙크까지 하는 바람에.
뭐냐고, 그만 수진은 웃음이 터지려는 걸 꾹 눌렀다. 사회생활 잘하려면 잘 가려 웃어야 하니까.

"벌써 퇴근해요?"

"외근 나가요."

"오 그래요? 마침 지하 주차장 가는 길인데 방향이 같으면 같이 탈래요?"

"고맙지만, 일행이 있어서."

드륵— 지하 주차장 유리문이 열렸다. 지근도 같은 층이라 뒤를 따르는가 싶었는데, 안 가고 어정거린다. 주차장이 어두우니 차 타는 것까지 봐주겠다며.

'성격 급한데, 난.'

그 김한성은?

의문이 뜨기 무섭게 스르륵— 대형 승용차가 다가와 섰다. 좔좔 윤기 흐르는 새까만 차체를 타고 빛 줄기가 미끄러졌다. 징 창문이 내려가고 흐린 조명에도 선명한 이목구빌 드러낸 한성과 눈이 마주쳤다.

"봐준 건데."

그가 픽, 웃으며 지근에게 시선을 던졌다.

"농담 따먹기나 하던 겁니까."

"아, 아니에요. 지근 씨는 금방 가려던 중이었어요. 그죠? 지근 씨?"

"---헉! 대표님!"

설마 외근한다던 일행이 까마득한 상사일 줄 몰랐다는 얼굴. 놀란 토끼 눈으로 횡설수설하던 지근은 어느새 총알처럼 사라졌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가 은은히 레스토랑 실내를 밝히고 있었다. 단정한 하얀 정복을 걸친 서빙 종업원들만 간간이 지나다닐 뿐. 은쟁반 위 유리알처럼 맑은 피아노 음만 공간을 감도는데.

쪼르륵.

수진 앞에 놓인 컵에 한성이 물을 따랐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밥 먹자길래 무심코 따라온 데가 이런 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원래 대표쯤 되면 이런 곳에서 밥 먹는 게 일상일지도.

그러다가도 밥값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 과몰입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빤히 본 한성이 살풋 벌어진 입술 새로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뭔 궁리인지 다 보여."

"에?"

"오늘 수고했으니까 사주는 거라고."

주머니 사정을 눈치챘나, 동공 지진 일으킨 수진이 물끄러미 쳐다보자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느라 식사를 걸렀다는 말이 이어졌다.

차 안에서도 일 얘기만 했고, 현장 조사차 들른 곳에서도 말 붙일 틈조차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난제를 받아든 기분이었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그는 너무나 냉철하고 철두철미했다. 괜히 대표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걸 증명하듯. 금수저 물고 자라서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랐나 지레짐작했던 게 부끄러울 정도.
그래서 밥 먹자 했을 때 답삭 받아들였다.

예전 연우이지만 함께했던 기억만 없는 김한성. 구해줬던 기억도, 한 지붕 아래 추억 없이도 그는 날 좋아할까? 아니, 난 다시 그를 좋아할까?
그걸 확인해 보고 싶기도 했고.

뭔가 바라고 한 일도 아니라 마음만 중요하다면. 빨리 기억을 되돌리는 것보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 게 먼저라면 물어야 한다.

"일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알고 자라서."

"그럼, 선택한 데 대한 후회는---?"

이제 막 다가온 종업원이 우아한 문양이 돋보이는 메뉴판을 하나씩 건네면서 말은 끊겼다.

익숙하게 메뉴판을 받은 한성이 태연하게 살피다, 인상을 찡그린 채 메뉴판 삼매경에 빠져 있는 수진을 보곤 말했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도 돼.”

한성이 추천하는 메뉴랑 먹음직해 보이는 것 중 몇 가지를 수진이 손으로 짚자 그 메뉴들을 그가 정확히 주문했다.

“예. 그럼 와인은 어떤 걸로 할까요?”

“도메인 세실 트랑블레---.”

매끄럽게 혀를 굴리며 주문하는 한성이 낯설었다. 익숙한 단골을 대하는 듯 주문을 받는 종업원 모습도.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빛나는 지금 모습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며 함께 지냈다니.
하지만 표정은 그때가 더 밝았어.

“후회 없이 살려고 하거든, 난.”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이곳 분위기, 장난 아니라 목구멍에 잘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석주방장이 세계 유수 미쉐린 식당을 다 돌았고.”

“----!”

“무엇보다 여긴, 그룹 계열이기도 하고.”

그러니 편하게 먹으라는 말에 화들짝 수진 동공이 열렸다.

도대체 태성그룹 발이 안 뻗친 데가 어디냐고. 아---그래서 예약 손님만 받는 이런 델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건가.

한성 뒤 통창으로 울창한 살림을 자랑하는 산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데, 얼마 안 있어 주문한 요리들이 새하얀 탁자 위에 차례로 내려앉았다.

커다란 접시에 예술작품처럼 담긴 요리는 하나같이 맛깔스러웠다. 황금빛 와인은 오크 숙성 특유의 깊은 풍미로 술술 넘어가고. 감자 뢰스티는 포슬포슬한 식감을 자랑했다.
버섯 크림소스까지 송아지 안심에 올려 먹으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녹아.

“그런데 참. 왜 이번 일에 절 지목했어요? 팀장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번 일은 저 아니어도 됐을 텐

데.”

차곡차곡 배를 채우던 수진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걸 물었다.

“----.”

낭랑한 피아노 음이 공간을 휘도는 가운데 그가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봤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와서 괜스레 침을 꼴깍 삼켰다.

“이유가 필요합니까.”

응, 그래. 대표 마음이지.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되는 특권을 지닌 남자가 오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한성이 목이 긴 와인 잔을 들자 또르르 물방울이 길쭉한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눈앞의 여자를 주시하며 와인을 머금고 혀로 느리게 굴리자. 짙은 향과 점점 홍조를 띠는 말간 얼굴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문득 한성은 그녀를 처음 봤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신입 지원자들 명단을 훑다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에 기이하게 끌렸고. 그래서 우연히 들른 것처럼 면접장엘 갔고. 무작정 마주 앉았었다. 그 후 잊을만하면 그녀가 떠올랐는데.

왜 저를 택했냐고?

그런 일탈적인 일련의 행동들을 뭐라고 설명할까. 정체 모를 감정을 현장 조사라는 이유를 대서라도 가까이서 분석해보고 싶었다고 할까.

그렇다고 성격상 일을 대충 한다는 건 그의 사전에 있을 수 없었다. 어디까지나 그녀가 적임자기도 했으니 벌인 일이었는데.
웃긴 건,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수수께끼 같은 미궁에 빠지는 기분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보고 있으면 계속 더 보고픈 건 또 뭔지.

넌 대체, 뭐지.

설익은 의문의 낱알들이 입안에서 거슬리는데. 어느새 창밖엔 파스텔처럼 저녁놀이 펼쳐지고. 그 노을이 비밀을 품은 이수진 눈동자에 녹아들고 있었다.

**

지이잉— 수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불시에 울렸다.

낯선 번혼데?

알 수 없는 예감에 선뜻 받지 않고 망설였다. 휴가차 집에 있던 창우가 소파에 누웠다가 고갤 틀었다. 빨리 받지 않고 뭐하냐고.

"---네."

—급히, 오셔야겠습니다!

"----할머니!"

휴대전화가 툭, 떨어지고 입술을 비집고 신음이 흘러나왔다. 안 들었다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 창우가 덥석 팔을 잡고 흔들었다.

"누나 뭐야? 왜 그래?"

몸이 무너질 듯 휘청였다. 그러다 창우의 해 맑은 얼굴을 마주한 순간, 수진은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

수진은 어떻게 병원까지 달려왔는지 몰랐다.
정신 차려 보니 병실 문이 눈앞에 있었다. 약한 모습을 보여 선 안됐다. 환자에겐 보호자가 거울과 같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문을 살며시 열었다. 얼굴에 창백한 그늘을 드리운 채 할머니가 누워있었다.

"할머니."

허기진 아이처럼 부르고 주름진 손을 답삭 잡았다. 바싹 말라 정맥이 불거진 손이 한동안 파르랗게 잔상으로 맺혔다. 이마엔 적막이 흘렀고, 입가에 감돌던 너그럽고 따스한 미소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일어나. 제발."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팔순 생신 때쯤이었을까.

'수진아, 이 할미한테 뭔 일 생기면 니가 동생 잘 보살펴야 한대이---.'

마치 예견이라도 하신 듯 말했었다.

남매가 어릴 때부터 도맡아 키워 오신 할머니였다. 그래서 부모와 다를 게 없는 분. 잊고 있던 추억의 시계가 비집고 올라왔다.

남매가 마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짧은 다리로 뛰며 돌고 있었다. 하악하악, 수진은 턱 끝까지 숨이 찼다.

'따라오지 마!'

'어차피 선물로 받은 건데, 이깟 사탕 하나 가지고 그러기야.'

'그래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예닐곱 살 때쯤이었을까? 사탕 가지고 남매가 옥신각신 다투는데---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가 입을 뗐다.

'짱돌 하나 주워 온나.'

두 눈을 동그랗게 뜬 남매가 잠시 동작 그만 상태로 있었다. 난데없이 돌이라니--에이, 아니겠지.

'뭐하노. 싸게 댕겨오지 않고.'

강경한 어조에 수진이 거북이처럼 어깨를 움츠렸는데 그새 냉큼 쫄래쫄래 나간 창우가 반들반들 윤기 나는 짱돌을 주워왔다.

'그걸로 내리쳐라.'

망설이던 창우가 사탕을 내리치자 와그작! 으깨진 가루가 나풀나풀 날리고. 한층 작아진 두 쪽 사탕만 오도카니 남았다.

'남맨 콩 한 쪽도 나눠 묵어야 하는 기라. 알긋나?'

그 이후로 수진은 먹을 게 생기면 뭐든 창우랑 나눠 먹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게 자라 손 내밀면 언제든 닿을만한 간격이 좋았다. 남매지간에.
창우 어깨가 잘게 떨리자 위로하려 손을 내밀다 멈칫했다. 제 손도 떨고 있다. 누가 누굴 위로하냐고.
고왔던 할머니 얼굴은 남매를 키운 세월만큼 겹겹이 주름져 있었다. 이제 남매가 진 마음의 빚은 갚을 길이 없는데. 좀 전 병실로 오는 길에 의사를 만나 들었다.

위독하다고.

창우의 손끝이 할머니 얼굴에 닿을락 말락 하다가.

"흐윽---."

그대로 털석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 곡선을 타고 주르르 흐르다 턱 끝에 맺혀 툭툭,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의 커다란 눈에도 눈물이 핑 고였다.

"흡."

재빨리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녀까지 소리 내 울면 할머니가, 창우가 더 슬플 거 같아서, 왠지 할머니가 위독한 게 그대로 갈 것 같아서.

낙엽이 흩날리는 늦가을 결국, 할머닌 돌아가셨다.

그리고, 소리 내 울었다.

10화. 요즘 허리가 불편해서

빛바랜 담갈색 낙엽이 사아아 휘날리는 언덕. 바람길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림자가 무덤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다.

"----."

부스럭, 하얀 국화꽃다발을 무덤 상석에 올린 한성이 잠시 묵념했다. 부디 영혼의 안식을 누리길.
이수진에게 고인이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그냥 바라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간 한성이 할 수 있던 건 병원비와 특별 병실 배려 정도. 보호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를 깨고 안 먹겠다는 그녀 식사까지 챙긴 건 열외로 치고.

안면 튼 지 얼마 안 된 사인데 그랬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나 할까. 기실, 대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됐다. 정해진 관례 따위 개나 주라지. 그저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다.

소중한 걸 잃는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망부석처럼 수진은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인지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 그것도 계속 보기 안쓰러울 정도인데 이젠 비석을 부둥켜안고 흑흑, 울기까지.

한성이 가만히 동그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대표님---."

서늘하지만 안정감 주는 손에 커피색 눈동자가 잘게 흔들렸다. 그러다 작은 머리통이 너른 어깨에 기대왔다, 작은 입김을 따라 살랑이는 숨결이 가슴에 스며들고 옷깃도 축축하게 젖어 들었다.

"그간 담담히 챙겨 주기만 해서---."

"----."

"고마워요."

싱긋 웃던 한성의 눈길이 오들오들 떠는 가녀린 팔에 비스듬히 머물렀다.

"그만 내려가는 게 어떨까. 바람이 차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퍼런 숲에서 비릿한 바람이 일더니 기어코 추적추적 비를 뿌렸다.

한적하기 이를 데 없는 공간에 참새들만 조잘댔다.

수진은 한성과 천천히 자그마한 그 마당에 들어섰다. 할머니가 안 계신 집은 텅 빈 껍질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두세 마리씩 몰려온 참새들만 부지런히 흙을 콕콕, 쪼아댈 뿐.

할머니 생전 모습을 닮은 가옥은 소박하고 푸근했다. 그래서 할머닌 이곳을 좋아하셨다.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을 만큼.

푸드덕.

수진이 마당을 가로지르자 참새들이 허공으로 날갯짓을 했다. 저들도 아는 거다. 항상 먹이 주던 이가 아니라는 걸. '불쌍한 것들. 겨울나기에 먹이가 모자라 어쩌누.' 하며 할머닌 허리춤 쌈지에 넣어 뒀던 모이를 뿌려 주곤 하셨다.

"그럼 나도---."

줘볼까, 툇마루 아래 작은 항아리 뚜껑을 달그락 열었다. 정물처럼 뒤에 선 한성은 그녀가 하는 양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샛노란 좁쌀을 한 움큼 집어 마당에 흩뿌렸다. 배불리 먹고 먼 길 가라고.

한성이 픽, 웃었다.

"그러면 또 올걸."

그리 말하면서도 덩달아 좁쌀을 한 움큼 집는다. 그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조금씩 모이를 던져 주며 부슬부슬 흩날리는 여우비를 바라봤다. 그 바람에 이웃 새들까지 몰려와 때아닌 성찬을 반겼다.

좁쌀을 탈탈 턴 수진은 작은 방문을 삐그덕 열었다. 훅, 그리운 할머니 냄새---. 눈가가 다시 불그스름 뜨거워지려 한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은 다시 오지 않을 주인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서랍장 위 덩그러니 놓인 스냅사진 액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수진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다. 눈에 선했다. 오며 가며 들른 이웃에게 은근슬쩍 보여주며 손녀 자랑하시던 모습이.

"똑같네. 어렸을 적 모습도."

"피---아닌데. 지금이 훨 나은데."

그 시절엔 선머슴처럼 짧은 단발에 햇볕에 탄 피부가 유난히 도드라진 아이였다.

"말간 눈망울이."

"아---."

바람결에 한성의 청량한 체 향이 흘러왔다. 순간적으로 한성과 연우의 모습이, 과거와 현재가 한 몸이 된 듯 겹쳤다. 계절이 거슬러 올라갔다. 흐르고 흘러서 별이 빼곡한 밤하늘 아래,

'좋아해. 너를'

말했던 그때로. 눈빛 속에 별들을 한가득 담고서.
먼데 흘러온 물결이 점차 별들을 삼키고--- 조각조각 흩어졌다,
그러다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수진은 고갤 절레절레 저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대로여도 지금은 다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까.

액자를 본래 자리에 살며시 내려놓은 수진은 무심코 드르륵 자개 서랍을 열었다.

"---어? 이 목각함은 뭐지?"

고이 들어앉은 목각함은 손때묻은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었다. 달칵 열자 가지런히 담긴 편지 묶음이 고갤 내밀었다. 아, 그러고 보니 이건 어린 시절 어버이날 수진과 창우가 할머니께 썼던 건데.

"---할머니."

이걸 여태---모아두고 계셨냐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닳고 헤진 편지 귀퉁이에 감정이 복받쳤다. 가끔 읽어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었을 생전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라서.

편지를 내려놓다 맨 밑에 납작 엎드린 레몬색 종이가 삐죽 눈에 띄었다. 그걸 꺼내는데 툭, 뭔가가 떨어졌다. 붓? 까맣고 윤기 잘잘 흐르는 미술용 붓이다. '이수진'이라고 라벨까지 붙어 있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다.

역시 할머닌---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수진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다는 걸.

집안 형편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한 걸 늘 안타까워하신 할머니가 쌈짓돈 차곡차곡 모아 사셨을 붓이었다. 잘게 떨리는 손이 종이를 펼쳤다.
한글을 간신히 떼신 할머니가 침 묻혀 가며 연필로 쓴 삐뚤삐뚤한 글씨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걸 읽을 때면 내는 이 시상 사람이 아니겠재.
해고픈 말은 많지만, 이 말만 냉긴다. 부모 없이도 남매가 올곧게 잘 자라서 이 할민 이빠이 자랑스럽대이. 해보픈 건 꼬옥 하고 사랑도 꼬옥 이루고 하루하루 재밌거렁 살기라. 알았재?

그라믄 이 할민 더 원이 없을기다. ~~어 할민 싹 어자블고. 아니, 쪼그맹커로만 떠올라고.~~]

찍찍 그은 줄에 그만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저런, 눈물 공장 차려야겠네."

그러면서도 냉큼 한성이 새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잔잔한 머스크향이 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면서.

---그래요, 할머니 말씀 꼬옥 기억할게요.

수진은 다짐했다. 어느새 비가 그친 하늘은 새파란 물감을 흩뿌리고. 김한성은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

—승객 여러분. 잠시 후면 공항에 착륙---.

삐 신호음과 동시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금세 위이잉 금속음이 터지며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좀 있으면 착륙하려나 수진은 작은 숨을 폭 내쉬었다. 넓은 좌석에 프라이빗한 공간, 고품질 식사를 자랑한다는 퍼스트클래스 석 임에도 비행기 공포증도 울렁증도 잠재우진 못했으니까.

고갤 돌린 수진의 시야에 짙은 속눈썹 그림자 드리운 채 눈을 감은 한성이 잡혔다. 밥 먹듯 해외 출장이 잦다더니 태평하기 이를 데 없다.

해외 답사 일정이 잡힌 지 불과 며칠---. 그 짧은 기간에 후다닥 모든 걸 해치우고 한숨 돌려보니 여기였다. 한성과 동행해서 이런데 앉아보는 호사를 누리긴 하지만. 대표가 몸소 동행까지 할 일인가?

'꼭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그는 대표님이지. 눈을 맞추며 뻔뻔하게 말했었지. 작은 창밖 너머엔 형이상학적으로 구름이

가득 찼다가 깨알처럼 도시 전경이 펼쳐졌다. 어느샌가 땅거미가 슬금슬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림 같은 남자 옆선 너머 조그만 불빛들이 점차 제빛을 드러내는데--- 설렌다. 방심하던 그때였다. 불시에 비행기가 급강하하는 게 아닌가! 두 손을 맞잡고 살려만 주신다면 하며 빌었다.

"안 죽어."

키득 웃음기 머금은 목소리가 귓전에 꽂혔다. 이과적 논리로 버스나 택시 같은 것들보다 더 안전하다며.

"꼭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무서울 때도 있는 건데."

그가 손가락 스냅을 탁, 튕겼다.

"자, 날 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

그러면서 복식호흡 시범을 보인다.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그건 그렇고 훅, 다가온 숨결이--- 묘하게 사람 혹하게 만드는 건 뭘까. 넋 놓고 망연히 쳐다보다 한번 따라 하려는데 삐— 신호음이 울렸다.

—도착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아니, 벌써?"

피질피질 올라간 입꼬리가 웃는다. 그제야 깨달았다. 고소공포증 따윈 까맣게 잊었다는 걸.

공항 로비로 나오자 이질적인 동남아시아 특유의 향취가 풍겨왔다. 입국 절찰 끝낸 사람들로 공항 로비는 후끈하게 붐비는데, 한성의 시선이 주위를 스윽 훑었다.

"저깄네."

"어이--- 여기요, 여기!"

말하기 무섭게 재깍 반가이 손 흔드는 장만이 잰걸음으로 걸어왔다. 오색 꽃무늬 셔츠를 국기처럼 펄럭이며. 그는 먼저 입국한 수석 비서답게 답사 준비를 마치고 대기타던 중이었다.

낯선 이국땅에 어리둥절하기도 잠깐 어느새 수진은 장만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있었다.

"일단 오늘 밤은 여독 먼저 푸시고, 일정은 내일 아침부터."

“호텔은?”

“당연히--- 오성급, 특급 호텔로 잡았죠.”

장만이 시익 웃는데, 표정은 영락없이 빨리 칭찬해 달라고 팔랑팔랑 꼬릴 흔드는 댕댕이였다.

“와, 덕분에 오늘 밤은 꿀잠 예약해 뒀네요.”

“에이~ 뭘요. 비행기 좌석은 어땠어요?”

“여실히 서비스가 다르던데요?”

“아 역시---!”

원래 비즈니스로 예약했다가 퍼스트로 바꾼 거라고. 흘끔 눈치 살피며 장만이 말하자 한성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럼, 날 배려해서?

“요즘 허리가 불편해서.”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에 한성이 재깍 말했다. 그럼 그렇지. 나 혼자 후루룩 김칫국 마신 거지.

“일정은.”

“분부하신 대로, 현지를 많이 접할 프리미엄 코스로 짜놨죠. 흐흐.”

다시 칭찬해 달라는 기민데 장만은 매끈한 얼굴만 마주해야 했다.
창 너머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도심 전경이 휙휙 스쳐 갔다. 잠시 일정 관련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는 사이에 환상처럼 번쩍 휘황찬란한 호텔이 모습을 드러냈다.

11화. 씨줄과 날줄

숨 가쁘게 빡빡한 일정이 연속으로 이어지던 날 아침. 수진은 끼니를 해결하려고 호텔 뷔페식당에 들렀다.

“피곤하다, 피곤해---.”

절로 하품이 나오던 그때 뒤통수에서 띵, 엘리베이터 소리가 꽂혔다. 입을 가린 채 무심코 돌아보던 눈이 서늘한 눈과 딱 마주쳤다. 김한성 대표였다.
하이얀 셔츠와 잘 다린 면바지. 말끔한 품 새가 빛이 난다, 빛이 나. 거기에 방금 샤워했는지 청량한 비누 향까지 사라라 풍겼다.
잘빠진 말쑥한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 해죽 웃었다. 뭐야. 이 남잔 퉁퉁 붓기 안 빠진다는 아침에도 그런 거랑은 인연 없는 거야.

"식사했어요?"

"지금 내려왔습니다만."

"그치. 방금 내려왔지."

어쩌다 만난 김에 같이 먹게 된 둘. 연어 샐러드를 한가득 담아온 수진은 한성 앞 접시에서 시선을 멈췄다. 커피와 샌드위치 한 조각이 다라니. 단출하기 이를 데 없었다.

'끼니는 든든히 채워야 제. 그래야 사람이 튼실 한기라.'

그러거나 말거나 할머니 말씀을 신봉하는 수진은 부지런히 포크를 놀리며 배를 차곡차곡 채웠다. 그럼 그럼--- 사람은 밥힘으로 사는 거지! 그런 그녀를 한성이 빤히 보다 픽, 웃었다.

"빈속에도 잘 먹네."

"습관이라서. 그리고 잘 먹어야 강행군도 버티는 거고."

"컨디션은---."

"----."

"괜찮습니까?"

"일이란 게, 힘들어도 버터야 할 때도 있고 수월해도 그만두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지금은?"

"전자요."

수진은 속눈썹을 살며시 내려뜨렸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이 일은 중요했다. 지금 흥미롭다는 얼굴로 지켜보는 저 남잘 더 잘 알려면, 그리고 기억을 되돌리려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지난번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음?"

“뭔가 떠오르는 건---?”

“---전혀.”

“-----.”

“왜, 내가 뭔가 기억해야 하기라도?”

푸스스 웃으며 수진은 고갤 저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거면서 뭔 소릴 심각하게 던지냐고 하던 한성은 식당 서버가 따라준 커피를 느슨히 마셨다. 수진이 몇 접시를 비울 때까지도.

“근데 지금,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럼?”

“물어보려고.”

그가 씩 입꼬릴 올렸다.

“혹시 좋아합니까? 요트 타는 거?”

“요, 요트요?”

“오늘 잠깐 일정을 비웠습니다. 힘들어도 잘 견디는 사람 보상 차원에서.”

저 너머 바다의 말간 푸름이 그의 눈동자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풀잎 색과 새벽하늘 색의 물감을 그러데이션 한 듯한 바닷물이 하얀 물거품을 물고 해안가로 밀려오고---밀려 나갔다. 물살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요트들을 보면서 수진은 한성 곁에서 길쭉한 부두를 따라 걸었다.
바람이 가느다란 머리칼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바람에 쓱 쓸어올리는데 한성이 검지로 한 요트를 콕 집어 가리켰다.

“저기, 저게 탈 거.”

“----!”

감탄이 절로 터지는 제법 큰 돛이 달린 새하얀 요트였다. 우아한 수반처럼 유려한 곡선을 뽐내는 선체는 그쪽에 문외한인 그녀가 봐도 비범했다. 배 위에 오르기 전 한성이 길쭉한 큰 손을 척 내밀었다.

“자.”

"----."

"안 잡으면 빠질 텐데."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인가, 멈칫거리던 작은 손을 얹었다. 그리고 이내 힘껏 잡은 감촉에 안도감이 잔잔한 파도처럼 몰려왔다.

요트란 건 처음이라.

선체에 올라 눈을 크게 뜨고 주월 살피는데 펄럭이는 흰 돛 사이사이 몇몇 선원이 비치는 듯하다가 금세 사라졌다.
수진이 상판 가장자리에 걸터앉자 배가 서서히 움직였다. 차츰 속도가 올라간다 싶더니 어느새 맹렬히 파도를 가르고 있었다.

"아 숨차---."

"-----."

단 숨결이 옅게 그에게 흘러갔다.
감청 빛 눈동자가 그녀를 보다가 목울대를 꿀렁 움직였다. 어두운 밤을 닮은 머리칼을 부드럽게 휘날리며. 김한성이라는 아득한 피조물을 맞은 햇살이 함뿍 쏟아졌다. 마치 빛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아무래도 위험해.

설레는 감정을 다 들키기 전에 수진이 시선을 바다로 틀었다.

"볼 때마다 시원하고 새롭고 아름다워요. 바다는."

그가 피식 웃었다.

"숨은---?"

"-----."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데."

파도 소리에 묻혀 그의 말이 흩어졌다.

"뭐라고 했어요?"

고갤 젓는 붉은 입술이 호선을 그렸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던 입술로. 수진은 낯 뜨거운 걸 떠올리기 직전 다시 시선을 바닷물로 돌렸다. 담청색 바닷물을 요트가 사정없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얼마간 더 달리자 기암괴석 절벽이 커튼처럼 펼쳐지고. 신이 조각한 듯한 절벽 밑에서 배가 멈췄다. 소리도 없이 갑판 위 새하얀 테이블엔 해산물과 샴페인이 정갈하게 올라앉아 있었다.

쪼르륵.

한성이 따라준 긴 잔에서 투명한 청포도 빛 액체가 뽀글뽀글 승천했다. 한 모금 삼키자 톡 터지는 단맛이 시원 상큼했다.

알싸한 발효 향, 취할 것 같은 바다 향, 바람결에 쓸려오는 허스키한 향---.

온갖 매혹적인 향의 복합체인 남자가 손만 뻗치면 닿을만한 거리에 있었다. 길쭉한 손이 잔을 들더니 발그스름한 입술에 근접했다. 홀린 듯 그걸 보는데 왜 저 액체가 된 기분인지. 목울대가 꿀렁거리다가 느리게 조였다.

"더?"

"아, 아니---더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

그가 빙긋 웃었다.

"대학생 때였나, 잠시 프랑스에 머물던 시기가 있었는데."

검푸른 눈동자가 빤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마신 코냑은."

"----."

"도수 때문인지 한겨울 냉기에 벌벌 떨던 몸도 순식간에 녹여버렸지. 잊을 수 없게."

그 말에 순간 수진은 간절히 바랐다.

네가 잊을 수 없는 게 나이기를.

언젠간 나에게 돌아와 주기를.

연우가 나를 좋아했던, 연꽃을 주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

출렁다리가 코앞이었다.

그 앞에 선 수진은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러면서도 벗어날 기미는 없었다. 실은 이곳을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찾았다. 급식 보조 대상이라는 걸 담임이 공개적으로 말해 버린 날이어서. 반 아이들 놀란 눈이 지금도 눈에 선해서.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였다.

저만치 견학 나온 듯한 무리에서 한 미소년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흘깃 안보는 척 보더니 가까이 더 다가온다. 뭐냐고. 왜 오는 거냐고.

"이 다리 말이야."

"다리가 뭐."

"일단, 잘 건너봐."

척 봐도 무슨 낌샌지 눈치챈 분위기였다. 이제 와 무슨 소리냐고 시치미 떼봤자 안 먹힐 게 뻔한.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순간 소년이 햇살처럼 웃었다. 그 웃음은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풀어버릴 듯 수진의 심연에 퐁, 파문을 일으켰다. 생면부지인 이가 웃어주는 웃음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니.

"언젠간, 네가 품고 있는 거--- 풀릴 테니까. 씨줄 날줄로 얽힌 매듭도 결국 풀리는 것처럼."

**

단단히 매듭을 지은 짐을 한가득 실은 오토바이가 곡예 하듯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다. 오후 일정이 끝난 저녁 무렵, 잠시 짬을 내 수공예품을 둘러보려고 수진과 한성은 전통 시장에 들렀다.

크기며 색이며 모든 게 낯선 색색의 열대 과일과 싱싱한 해산물들---그리고 진열대를 한가득 채운 수공예품들이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짓했다.
주말이라 골목길마다 몹시 붐비는 와중에 한성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수진을 보호하듯 막았고. 몸에 밴 매너에 내심 감탄하며 수진은 눈동자를 바쁘게 굴렸다.

"수공예품 살 땐."

"----."

"득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사본 경험 있어요?"

비스듬히 고갤 기울이며 한성이 픽 웃었다.

“그보단 행운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길을 아는 것처럼 길게 뻗는 발을 따라 꼬불꼬불 좁은 길을 지나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였다. 수진의 눈동자가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작지만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상점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짙은 갈색 피부에 까만 아몬드형 눈. 인상 좋은 상점 아저씨가 환히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마침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그는 한국어가 능숙한 중년 남자였다. 한성이 이 가겔 알고 온 건지 모르고 온 건지 모르지만 암튼 헤매면서 다리품 파는 건 면했다.

상점 안으로 들어서자 수공예품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전경이 켜켜이 드러났다. 알록달록한 조각품과 한땀 한땀 정성스레 만든 손뜨개 가방, 행운을 불러온다는 태피스트리 그런 것들이 진열대 위에 한가득 올라앉아 있었다.

토끼굴처럼 밖에선 보면 단순한데 안은 제법 복잡한 구조였다.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선택하기엔 물품이 너무 많았다. 그때 구세주처럼 상점 아저씨가 뭔가를 끄집어냈다.

“요건, 스쳐만 봐도 눈 번쩍 뜨이는 희귀 품인데---손님께만 특별히 보여드리지요. 자, 어떻습니까?”

“----.”

조심스레 내민 건 꽉 잡으면 와사삭 부서질 것 같은 섬세한 목각인형이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게 그거랑 한 쌍인 모양인데?”

한성이 공예품 더미 어딘가서 다른 걸 쏙 집어 올렸다.
토속신앙 속 이름 모를 여신은 하나였을 때도 아름다웠는데 한 쌍이 되자 완성체로 변신했다. 구불대는 긴 머리칼에 각자 다른 모양새를 한 여덟의 팔, 머리엔 섬세한 티아라를 쓰고 옷은 나비 날개처럼 하늘거렸다.

아몬드 눈이 동전으로 변했다.

“오, 안목이 뛰어나시네에에---! 일반적으로 이게 한 쌍인 걸 잘 모르는데. ---어쨌든 사시면 후회 안 할 겁니다. 흐흐.”

장삿속에 한 말일 테지만 그 말에 혹해 수진은 사기로 마음먹었다. 지갑을 찾아 뒤적거리자 돌연 정색한 상점 아저씨가 검지를 치켜들었다.

“단지, 기억해둘 것은---.”